



평화수호자 공군 피스아이



GLOBAL &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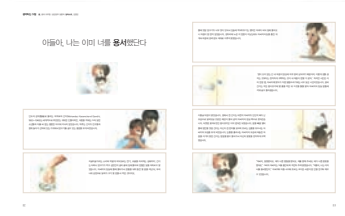
06



- 06 Pioneers up above 김영환 장군
- 08 World-Wide Vision 50년 간의 최첨단 미군 감시작전을 이끌어온 U-2 항공기
- 10 Global AF 불바다가 되어버린 도쿄
- 12 Leadership+ 강압적 리더십?

공군IN

14



- 14 기획특집 평화의 수호자 '피스아이' 를 만나다
- 24 연말특집 뉴스 모니터 병사가 선정한 '2012년 공군뉴스 TOP 10'
- 28 포토프레임@AF 참모총장 스케치
- 30 AIR FORCE MONTHLY 2012. 12. NEWS
- 32 생각하는 그림 아들이,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 34 Photo Sketch 김해기지의 빛나는 밤
- 40 공군 홍보대사 Zoom In 구자철 선수 근황

COVER STORY



표지(앞)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피스아이를 이미지화한 일러스트 일러스트 | 이한아
표지(뒤) 2013년 1월 개편되는 월간 공군 티저 광고

CULTURE 36.5

42



- 42 Hollywood English 가디언즈
- 44 인생은 아름다워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
- 46 Air-Supply 첫사랑은 떠나고 현실적인 사랑이 다가왔던 2012년
- 48 Art in Everyday 그대안의 블루
- 50 Preview 12월의 문화행사

OPINION

52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10월호를 읽고서
- 27 공군지 캠페인 살맛나는 병영문화 함께 만들어요!
- 52 Health Diary 겨울철 피부 지키기
- 54 광고 개편호 예고 및 즐거운 인터뷰, 담벼락 공모
- 55 Special Thanks to 신년 개편과 함께 월간 「공군」을 떠나는 필진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
- 56 책마을 반동의 물

MONTHLY MAGAZINE

VOL. 414. 2012. 12

※ 공군지를 인터넷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airforce.mil.kr>)

발행일자 2012년 11월 30일(통권 제414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43, 042-552-6943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김승표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대위 김나청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10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01 월간 「공군」은 [우정]이다. 친구처럼 따스한 기사로 제 마음을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가을 이벤트라는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공군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많은 장병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좋은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호가 올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 전남 여주시 양승주

02 월간 「공군」은 [옹달샘]이다. 사람들이 옹달샘을 통해 갈증을 해소하듯 저는 월간 「공군」을 통해 갈증을 해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군의 아버지 최용덕 장군님에 대한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공군의 정신적 토대이신 최용덕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는 공군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군에서도 지상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작전을 지원하는 장병들의 이야기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 노원구 이재형

03 월간 「공군」은 [친구]다. 부담없이 다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책을 아예 읽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책과 그다지 친한 편이 아니었던 제게 이번 호의 '공군인을 위한 책 읽기 스타일 제안' 코너는 독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월 다양한 소재로 재미있는 월간지를 만들어주시는 편집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충남 계룡시 기효성

04 월간 「공군」은 [사계절]이다. 지독하게 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찬 기운 가득한 계절로 변했듯이 월간 「공군」도 사계절처럼 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술로 소독할 수 있다고'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책과 영상물에서 속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구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에 걸맞는 '독서'라는 주제로 꾸며준 페이지도 너무 좋았습니다.

- 전북 익산시 김정희

05 월간 「공군」은 [호빵]이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따뜻한 호빵이 최고이듯이 월간 「공군」은 독자들에게 따뜻함과 사랑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학교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월간 「공군」은 저에게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기획특집 '책 읽는 공군' 기사가 인상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블랙이글 에어쇼 현장사진도 너무 멋졌습니다. '공군인이 뽑은 최고의 연예인' 등의 앙케트 조사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대전 중구 김수훈

06 월간 「공군」은 [대외비]다. 남들에게 알려줘서는 안될 것만 같은 알짜배기 정보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기획특집 '책 읽는 공군'에서 '사서가 궁금해' 코너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필자가 느꼈을 고충과 책임감을 공감할 수 있었고, 저도 열심히 군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기가 소속된 부대를 자랑하고 싶은 병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대 자랑'과 같은 코너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충북 청원군 조완호



Global & Insight

글로벌 리더십?
* Leadership+

도쿄 대공습(Bombing of Tokyo)
* Global AF
플버다가 되어버린 도쿄

50년 간의 최첨단 미군 감시작전
* World-Wide Vision
이클라우드 U-2 항공기

글로벌 선군
* Pioneers up above

김영환 장군

확고한 신념으로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용기와 결단력



김영환 장군은 1920년 서울 사직동에서 출생하였다. 초대 공군참모총장 김정렬 장군의 친동생인 그는 어릴 적부터 학업에 뜻을 두어 경기고를 졸업하고 일본 간사이대학 법과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일본군에 징집되어 육군 예비사관학교를 거쳐 소위로 복무하던 중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과 함께 귀국한 그는 1948년 조선경비사관학교의 기본교육을 마치고 육군 소위로 정보분야에서 일하면서 공군 창설 7인 위원 중 막내로서 활약하였다. 그는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군의 현직 정보과장을 맡고 있어서 군의 내부 동향과 항공부대 창설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군 창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9년 마침내 공군이 독립되자 그는 공군비행단의 참모장에 임명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T-6 훈련기를 조종하여 직접 폭탄과 수류탄을 적 전차와 차량, 적병에게 투척하면서 결사적인 공격으로 적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1951년 8월, 그는 미 공군으로부터 경남 합천의 해인사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900여 명의 북한군 게릴라 무리들을 소탕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김 장군은 4기 편대의 편대장으로서 요기들을 이끌고 목표지점으로 출격하였다. 전투 기마다 230kg짜리 폭탄 2발, 로켓탄 6발, 기관총탄 1,800발씩을 장착하고 편대

장은 250kg짜리 네이팜탄까지 장착하여 폭격임무에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목표 지점에 도착해보니, 해인사 경내에 숨어있는 북한 게릴라들을 폭격하라는 지시였다. 그는 요기들에게 자신이 직접 지시하기 전까지는 폭격을 일체 금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적정을 살폈다.

미군 통제기는 해인사를 빨리 폭격하라고 연막탄을 쏘며 수차례 독촉했지만 그는 산 능선 주변의 적들을 공격하면서 해인사를 끝까지 지켜냈다. “사찰보다는 국가가 중요하지만 북한군 수백 명을 죽이려고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인 팔만대장경을 폭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이같은 전략적 배려에 힘입어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국보 제32호로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될 수 있었다.

이처럼 용기있는 결단으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김영환 장군은 1951년 9월 28일 강릉전진기지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한국 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한국 조종사들이 미 공군의 지휘를 받으며 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는 독자적인 항공작전을 수행하게 되자, 비록 연약한 항공력이었지만 적의 전략적 중심을 무력화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항공력을 운용했다.

공군약사에는 '1951년 10월 11일 우리 공군에 의한 독자적인 출격작전은 강릉공군기지에서 인제 동북방 '당장곡' 공격을 시발로 감행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UN 공군과 보조를 맞추어 동부전선의 공산군 보급로를 차단하는 임무뿐만 아니라, 적의 중심에 위치한 승호리철교 폭파와 같은 전략폭격작전도 감행하였다. 강릉기지에서 휴전될 때까지 약 2년간 우리 공군은 독자적인 항공작전을 지속하였으며, 총 108명의 조종사가 7,851회를 출격하여 전략폭격으로 적의 중심을 강타하고 적의 후방을 차단하며 아 지상군작전을 지원하는 등의 임무를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11명의 조종사가 적의 상공에서 애기와 함께 산화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에 김영환 장군은 형수가 만들어준 '빨간 마후라'를 최초로 착용하고 출격하여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 만의 멋진 복식전통을 만들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빨간 마후라는 평시에 조종사들의 정렬적인 기상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비행 중 불시착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위치를 탐색구조대에게 잘 보이도록 하는 생존용 장구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는 부대를 지휘함에 있어서 호탕하고 대범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부하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유복한 집안에서 구김살 없이 성장한 그는 아랫사람들을 관용으로 이끌며 어려운 일은 술선수범하여 해결하는 스타일이었다. 새로운 강릉기지로의 이전은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 한 여건이었지만 그의 훌륭한 리더십은 전 장병들을 한마음으로 단결시켰고 위국헌신의 군인정신으로 그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고 고난도 작전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하였다.

강릉전진기지에서 한국 공군의 가장 빛나는 전과는 1952년 1월 15일에 출격하여 수행한 평양 인근의 승호리철교 폭파작전이었다. F-51D 6대로 구성된 2개 편대(제1편대장 윤응렬 대위, 2기 정주량 대위, 3기 장성태 대위, 제2편대장 옥만호 대위, 2기 유지곤 대위, 3기 박재호 대위)는 강릉기지를 이륙하여 북한의 동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중심보급로인 승호리철교 폭파작전에 돌입했다. 이미 유엔 공군이 수차레나 폭파를 시도했지만 적의 대공포화에 막혀 번번히 실패했던 고난도의 표적이었다.

윤응렬 대위가 이끄는 공격편대군은 자신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빗바치는 대공포화를 헤치고 위험고도인 1,500피트까지 급강하하면서 승호리철교에 집중 폭격을 가하여 성공적으로 폭파시킴으로써 이 철로를 무력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유엔 공군이 실패를 거듭했던 고난도의 작전임무를, 상대적으로 연약하기



김신 장군과 김영환 장군의 모습

만 했던 한국 공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성공한 것이다. 순전히 자신들의 안전은 돌보지 않고 견적필승의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전과였다. 이는 한국 공군의 원숙한 기량과 임전무퇴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한 작전으로써 미군 지휘부에서도 유례없이 폭파된 철교의 항공사진을 보내주며 이 쾌거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 공군 최초의 100회 전투출격 기록도 강릉전진기지에서 수립되었는데, 1952년 1월 11일 김두만 소령이 첫 100회 전투출격 기록을 수립하였고, 5월 18일에는 손재권 소령이 두 번째 기록을 달성하였다. 이처럼 공군사에 있어서 강릉전진기지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김영환 장군은 초대 비행전대장으로서는 전 장병을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고난도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끈 훌륭한 에어맨이었다. 비록 연약했던 항공력이지만 그 전략적 가치를 십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전략임무를 수행하고자 진력하였다. 그는 1953년에 제10전투비행단 초대 단장으로 취임하여 그 유명한 351고지전투를 비롯한 동부전선의 한국 지상군에 대한 항공지원작전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였다.

김영환 장군은 1954년 3월 5일 제10전투비행단 창설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F-51기를 조종하여 경남 사천기지를 이륙, 강릉기지로 비행하던 중 기상악화로 목호 상공에서 실종되었다. 공군 창설의 주역, 한국전의 영웅, 빨간 마후라의 실제 주인공인 그는 향년 33세의 젊은 나이로 하늘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장군은 6·25전쟁에서의 무공으로 을지훈장, 금성총무훈장, 금성을지무공훈장, 미국비행훈장을 수여받았고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수호한 공적으로 2011년 8월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AF**

50년 간의 최첨단 미군 감시작전을 이끌어온 U-2 항공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항공기에 대하여, 만화 캐릭터 스누피를 닮은 코, 내지는 칠흑같이 검은색 몸체에 빨간색 꼬리를 가진 항공기 정도를 떠올리곤 한다. 이러한 신비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항공기는 미 공군이 운용하는 U-2로서, 지난 50년 간 미군의 감시정찰작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U-2 항공기의 첫 기종이 출시된 1950년대 이래, 기존의 빛나는 알루미늄 기체는 전체적으로 검은 도색칠을 한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외형적 변화뿐 아니라 정보 및 이미지 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임무 역시 확대되어 왔다.

본래 U-2 항공기는 과거 냉전시기, 고고도 정보-감시-정찰(ISR) 비행 임무를 통해 적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종으로서 개발되었다. 오늘날 운용되는 U-2S 항공기는 지상전투 지원 및 재난 구조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월을 거치면서, 현재의 U-2 항공기는 과거에 비해 기체 크기가 33% 정도 커졌으며, 광섬유 통신장비 및 전면 유리로 된 조종간(cockpit) 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항공기의 탑재 능력과 체공시간을 늘리고 비행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개선된 부분이다.

“U-2 항공기는 마치 Mr. Potato Head(눈, 코, 귀, 머리, 옷 등 각 부분을 떼었다 붙여 다른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인형)와 흡사합니다.” 제99정찰대대의 교관 조종사인 존 중령이 이야기했다. “필요에 따라 장비 일부를 떼어내고, 새로운 것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새로운 기술 및 장비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도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새로운 무기 시스템은 U-2 항공기를 더욱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봅니다.”

U-2 항공기의 주요 임무 중 한 가지는 예전의 습식 필름(Wet-film) 카메라를 통해 영상 이미지를 캡처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상 이미지는 고도 7만 피트 상에서 도로변 폭발물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며 현존하는 어떠한 디지털 센서보다도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다. “최초 U-2 항공기에 탑재된 장비는 습식 필름 카메라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인해, 제가 상공에 홀로 있다고 해도 혼자 아님니다. 지상본부에서 약 40~50여 명의 병력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연동 시스템을 통해, 협력적으로 임무에 임하기 때문에 다 함께 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 존 중령이 이야기했다.

U-2 항공기의 역동적인 기체는 약 4천 파운드의 장비를 탑재할 수 있어, 첨단 기술 및 신장비를 테스트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광범위한/막대한 탑재 능력을 기반으로 U-2 항공기는 다중의 임무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제1정찰대대의 조종 교관 마이클 대위는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U-2 항공기는 지상군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지상 작전을 지원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원 임무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지상 병력에게 레이더 안테나 기능을 한다든지, 자연재해 시 재난지역의 세부적인 영상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능 등이 있다. “우리의 존재는 작전 능력에 획기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우군에 확실한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라고 마이클 대위는 덧붙였다.



1 14인의 제1정찰 항공 대대소속의 U-2 조종 교관들이 캘리포니아 주 소재, Beale 공군기지에서 복좌형 U-2S 항공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소수 정예로서, 현재까지 양성된 U-2항공기의 조종사의 숫자는 미식축구 슈퍼 볼 경기의 우승자 수보다도 적다고 한다.

2 U-2 항공기들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정비를 받고 있다. U-2는 고고도 정찰 항공기로서 7만 피트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U-2 EVOLUTION FROM THE PAST TO THE FUTURE

THE U-2, NICKNAMED "DRAGON LADY," IS A SINGLE-ENGINE, VERY HIGH-ALTITUDE RECONNAISSANCE AIRCRAFT OPERATED BY THE UNITED STATES AIR FORCE.

1950s

U-2A
INITIAL PRODUCTION AIRCRAFT

U-2B
TWO-SEAT TRAINER

U-2C
ENHANCED SINGLE-SEAT MODEL

U-2E/F
AERIAL REFUELING CAPABLE

U-2R
REDESIGNED ENLARGED AIRFRAMES WITH UNDERWING PODS

U-2G
CARRIER OPERATION

U-2S/TR-1A
SIDE-LOOKING RADAR, NEW AVIONICS, IMPROVED ECM EQUIPMENT

DEVELOPED BY LOCKHEED'S "SKUNK WORKS," THE U-2, TESTED AT BROOM LAKE IN THE 1950S, HAS EVOLVED INTO ONE OF THE MOST RELIED UPON ASSETS IN THE U.S. MILITARY FOR TODAY'S WIDE-RANGING WARTIME AND HUMANITARIAN MISSIONS AROUND THE WORLD.

MODELS NOT SHOWN: U-2D, U-2E1, U-2M, WU-2, ER-2, U-2PL, TS-26, U-2EPX, TR-1B
INFOGRAPHIC BY AIRMAN 1ST CLASS ANDREW BUCHANAN, U.S. AIR FORCE

- 3 U-2 조종사가 비행 중 밖을 내다보고 있다. U-2 조종사는 압력 저하 시, 생존을 위해 우주인이 입는 여압복(full-pressure suit)을 착용한다.
- 4 U-2 항공기가 캘리포니아 주 Beale 공군기지에 착륙을 하고 있다. "모바일"이라 불리는 교신 차량은 항공기 뒤를 따르며, 착륙 중인 조종사에게 항공기의 정확한 고도 및 위치를 알려준다. 모바일 차량 역시 U-2 조종사로서, 다른 조종사에게 항공기 유도(택싱), 이륙 및 착륙을 지원한다.
- 5 Andrew Buchanan(앤드류 뷰캐넌)의 U-2 항공기 변천사

작전 보안상, U-2 항공기 및 임무의 세부사항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U-2 항공기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작전에 참여하는 조종사들조차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제한된 내용만 알았다고 한다. 예비역 토니 베버쿠아(Tony Bevacqua) 중령은 이러한 미군의 초창기 U-2 조종사 중의 한 명이다. 그는 U-2 항공기가 냉전시대에 처음 개발된 후로, 구소련 연방, 쿠바 등 주로 적대국의 정찰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미군의 정찰 기술이 적군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안에 모든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베버쿠아 중령은 "저는 당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임무에 자원하였습니다. 아무도 제게 U-2의 임무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공기는 당시 최첨단 기술의 요체였고, 일반 대중에는 철저한 비밀로 부처졌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초기 조종사들은, 당대 최신 항공기인 U-2에 대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우고 만들어야 했다. 이들은 최초 U-2 조종 훈련 프로그램을 불과 몇 주 만에 개발하였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U-2 프로그램은 현역 조종사가 80명이 채 되지 않는 소수 정예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제1정찰대대 대대장 스티븐 로드리게스 중령은 "아마 U-2 조종사보다 슈퍼볼 경기에서

우승한 미식축구 선수들 수가 더 많을 겁니다."라며 "U-2 항공기의 역사를 통틀어 조종사수가 1,000명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한 해 동안 길러지는 다른 한 기종의 조종사수보다도 적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종사들이 U-2 임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많은 공군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U-2 항공기가 전송해오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및 전파하여 작전 수행을 완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군인들은 전 세계 작전지역의 지휘관들에게 임무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제9정보대대 편대장인 Sean 상사는 "미국의 임무 항공기를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보람있는 일입니다."라고 자부심을 밝혔다. U-2 항공기는 오늘날, 다양하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2040년까지 미군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U-2 조종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투임무 및 향후에 직면하게 될 국가 안보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에게 적시적소에서 효과적인 고고도 ISR(정보감시정찰) 지원 임무를 계속 담당할 것이다. **AF**

※ World-Wide Vision 코너가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쿄 대공습 불바다가 되어버린 도쿄

Bombing of Tokyo

1942년 4월 18일 미 해군 항공모함 호넷에서 출격한 미 육군 항공대 B-25 폭격기 16대가 일본 열도를 향해 이륙했다. 지미 돌리틀 중령이 지휘하는 폭격기들은 도쿄, 요코하마, 요코스카, 가와사키 등 일본 각지에 폭격을 감행했다. 이 공습으로 사상자 300여 명과 350채의 가옥이 파괴되었다. 폭격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일본 군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미국은 진주만 공습으로 실추된 자존심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돌리틀 공습 이후 일본 열도에 대한 공습은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못했다.

B-29 폭격기의 등장

01



1942년 9월 21일 첫 비행에 성공한 B-29 폭격기
(사진 출처 미 국방부)

1938년 미 국방부는 신형 폭격기 개발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주요 항공기 업체에 발송한다. 1939년 구체화된 미 육군 항공대의 작전 요구사항에 따르면, 신형 폭격기는 대량의 폭탄을 싣고 8,400km의 항속거리와 시속 5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야 했다. 슈퍼 폭격기로 불려진 이 신형 폭격기는 보잉사에 의해 구체화되었고, 1942년 9월 21일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다. 이후 B-29라는 제식명칭을 갖게 된 신형 폭격기는, 이전의 폭격기들과는 성능면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었다. 10톤(Ton)의 폭장량과 6,000km에 달하는 항속거리, 9,000m의 고고도에서 작전능력은 가히 괴물 폭격기라고 부를 만했다. 특히, B-29 폭격기에 새롭게 개발된 여압장치는 승무원들이 답답한 산소 마스크와 두터운 방한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태평양 전선에 배치된 B-29 폭격기

02



돌리틀 공습 이후 미군의 일본 열도에 대한 공습은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진 출처 미 문서 보관소)

B-29 폭격기는 시제기 2호가 엔진 결함으로 추락하면서 양산이 늦어지게 되었다. 결국 1944년 3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그러나 유럽 전선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B-29 폭격기가 활약할 기회가 없었다. B-29 폭격기는 태평양 전선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다. 중국에 배치된 B-29 폭격기는 제20폭격기 사령부에 배속되었고, 1944년 6월 14일 일본 열도에 대한 최초의 공습을 감행한다. 68대의 B-29 폭격기가 출격해 일본 남부의 규슈에 위치한 제철소를 폭격했다. 그러나 애초 기대와 달리 47대의 B-29 폭격기만이 공습에 참여할 수 있었고, 투하된 폭탄은 목표에서 대부분 빗나가고 말았다. 또한 적기의 공격으로 B-29 1대가 격추되었으며, 6대를 사고로 잃고 만다.

1942년 4월 18일 지미 돌리틀 중령이 지휘하는 B-25 폭격기들이 일본의 주요 도시를 공습했다.
(사진 출처 미 문서 보관소)

지휘관의 경질

03



제20폭격기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취임한 커티스 르메이 소장은 폭격전술에 변화를 가져온다.
(사진 출처 미 육군)

B-29 폭격기는 7월 7일과 9일에 재차 일본 남부로 출격했지만 공습의 결과는 실망스러웠고, 오히려 B-29 폭격기의 피해만 늘어났다. 결국 미군 수뇌부는 제20 폭격기 사령부의 사령관인 울프 장군을 워싱턴으로 소환해 경질시켰고, 커티스 르메이 소장을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커티스 르메이 소장은 유럽 전선에서 폭격기 부대를 지휘했던 전설적인 지휘관으로, 정교한 폭격기 비행대형을 개발해 폭격기들의 생존성을 향상시켰고 공습의 정밀도를 높였다. 커티스 르메이 소장은 취임하자마자 정밀 폭격에서 지역 폭격으로 폭격 전술을 바꾸었다. 또한 고폭탄보다는 소이탄을 대량으로 사용해 폭격의 피해를 늘리고자 했다. 이후 소이탄과 새로운 폭격전술을 갖춘 84대의 B-29 폭격기가 중국의 한코우(漢口)를 공습했다. 공습의 효과는 대단했다. 소이탄은 목조 건물이 위주인 아시아의 도시에서 가공할 위력을 발휘했고, 한코우는 4일 동안 불바다가 되었다.

마리아나 제도로의 이동

04



1944년 10월 B-29 폭격기가 마리아나 제도에 배치되었고, 11월 24일 110여 대의 B-29 폭격기가 출격해 도쿄로 향했다.

(사진 출처 미 공군)

그러나 중국에서의 공습은 보급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일본 열도에 대한 공습은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시기 미군은 마리아나 제도(사이판, 티니언, 괌)를 점령하고 일본 열도 공습을 위한 B-29 폭격기 기지들을 세우고 있었다. 1944년 10월 B-29 폭격기가 마리아나 제도에 배치되었고, 11월 24일 110여 대의 B-29 폭격기가 출격해 도쿄로 향했다. 돌리를 공습 이후 최초의 도쿄 공습이었다. 그러나 출격한 폭격기들은 적의 대공포화를 피하기 위해 고고도로 비행하던 중 제트 기류를 만나 어려움을 겪었고, 투하된 폭탄은 강풍을 만나 소수의 폭탄만이 목표물에 떨어졌다. 이후 도쿄에 대한 공습은 수차례 진행되었지만, 제트 기류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폭격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소이탄과 새로운 폭격전술을 갖춘 84대의 B-29 폭격기가 중국의 한코우(漢口)를 공습해 4일간 불바다로 만들었다.

(사진 출처 미 육군)

도쿄 대공습

05



최초의 도쿄 공습은 실망스러웠지만, 1945년 3월 9일과 10일에 펼쳐진 도쿄 대공습은 무려 10만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사진 출처 미 육군)

B-29 폭격기의 저조한 성적에 미군 수뇌부는 실망했고, 커티스 르메이 소장을 다시 한 번 기용한다. 한코우에서 소이탄으로 효과를 본 커티스 르메이 소장은 도쿄에 이를 적용했다. 1945년 3월 9일 도쿄의 밤 하늘에 B-29 폭격기가 나타났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B-29 폭격기는 소이탄을 폭탄창에서 쏟아내기 시작했고, 곧이어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상에서 발화된 소이탄들은 바람과 합쳐져 거대한 화염 폭풍을 형성했고,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소이탄에 들어있는 오일은 물에서도 타기 때문에, 강과 바다에서도 화염이 가시지 않았다. 다음날에는 보다 대규모의 공습이 이어졌다. 300여 대의 B-29 폭격기는 2천 400여 톤의 소이탄을 퍼부으며 다시 한 번 도쿄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2일간 이어진 공습으로 10만여 명이 사망했다. 이후 B-29 폭격기는 일본인들에게 공포로 다가왔다. 6월까지 이어진 공습은 일본의 6개 주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일본 열도는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다. B-29 폭격기는 일본 연안에 광범위하게 기뢰를 부설했고, 섬 나라인 일본의 생명선을 차단했다.

맺으며...

06



도쿄 대공습은 드레스덴 폭격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최악의 폭격으로 기록되고 있다.

1945년 8월 6일 B-29 폭격기에서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Little Boy)가 히로시마에 떨어졌다. 4일 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팻맨(Fat Man)이 투하되었다. 2차례에 걸친 원자폭탄 투하는 일본의 패망에 결정타를 가했고, 결국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하고 만다. 그러나 원자폭탄의 사용은 종전 이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1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도쿄에 대한 소이탄 공습으로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굳이 원자폭탄이 아니더라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소이탄 공습이 이어졌다면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만큼 도쿄 대공습은 위력적이었고, 지금까지도 드레스덴 폭격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최악의 폭격으로 기록되고 있다. **AF**

※ Global AF 코너가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연재 종료됩니다.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압적 리더십?

LEADERSHIP

우리 리더십과 코칭 워크숍이 끝나면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존중, 배려, 사랑 등의 원칙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한두 명은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자신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기에 자기 자녀들이 모두 괜찮게 되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교육받은 대로 갑자기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기 스타일을 바꾸어 위임하고 질문하고 상의해야 된다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항변한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의 매가 자녀들을 누우치게 하고 반성케 했다면 모르지만 원망과 반발심을 갖게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변칙적인 방법이 아니냐고 묻는다. 동물들이 매질을 하면 듣는 것처럼 인간도 아주 어려서 자존감이 형성되기 전이라면 몰라도 학교를 다닐 나이가 되었다면 자성예언, 칭찬, 강점 강화 등과 같은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겠느냐고 도전한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강압적인 리더십으로 임직원들을 닥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심하게 꾸중까지 한다면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며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되겠는가? 그런 방법으로 성과향상이 되겠는가?

그렇다고 신입사원이나 문제 사원들에게 중요한 업무를 위임하고 상의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지시해야 되고 일부 문제 사원들에게는 명령까지 해야 될지 모른다. 지시와 명령, 업무 위임은 부하직원들의 신뢰성 수준, 즉 역량과 성품에 달려 있다. 문제는 신뢰성을 갖추어 신뢰받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고, 명령하여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창의력을 말살시키며 반발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신뢰성의 수준을 파악하여 지시와 위임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리더의 근본적인 역할이다. 그들이 리더의 자리에 오른 이유도 바로 이러한 능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것' 이야말로 리더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 회사에는 쓸 만한 인재가 없어'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경영자들의 회사 임직원들은 '우리 회사 경영진은 임직원들에게 동기부여시킬 줄 몰라' 라고 말한다. '용장 밑에 용군'이라는 말이 있듯이 유능한 경영자나 부모 밑에 유능한 임직원과 자녀들이 있게 된다.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너무 강압적이지는 않은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주변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자신은 어떤 리더십 덕목을 개발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자. **AF**

※ Leadership+ 코너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 종료됩니다.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수호자 '피스아이'를 만나다
피스아이 최초 탑승 취재!
주변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 기획특집

뉴스 모니터 병사가 선정한
'2012 공군뉴스 TOP 10'
* 연말특집

살맛나는 병영문화 함께 만들어요!
* 공군지 캠페인

참모총장 스케치
* 포토프레임@AF

2012. 12. NEWS
* Air Force Monthly

아들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 생각하는 그림

김해기지의 빛나는 밤
* Photo Sketch

공군IN

Peace Eye



평화의 수호자 ‘피스아이’ 를 만나다

김해기지에서 만난 피스아이

가을의 기운이 만연하던 11월 초 서울을 떠나, KTX 차창 밖으로 울긋불긋한 가을 산하를 보며 김해공군기지로 향했다. 김해공군기지는 우리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피스아이의 등지가 위치한 곳이다. 군 제대 이후 군사전문지에서 일하면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작성한 바 있었다. 또한 미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E-3 에이웍스기도 참관한 바 있지만, 우리 공군의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본다는 설렘에 마음은 어느새 김해공군기지에 도착해 있었다. 김해공군기지에 도착해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로 향했을 때, 우선 초현대식 건물에 눈이 집중되었다. 건물에서 풍겨지는 아우라는 최첨단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를 운용하는 부대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다.

네트워크 중심전을 “맛”보다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를 견학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우리 공군이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을 적용시키기 위해 IT 인프라를 무기체계 및 군 운용 전반에 적용하고 있는 점이었다. 네트워크 중심전은 군사 용어로, 전투 공간에서 파악 가능한 모든 요소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전투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특히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가 운용 중인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그 어떤 무기체계보다 강력한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을 자랑했다. 단순히 적의 위협을 탐지하고 전파하는 것을 뛰어 넘어, 데이터 링크를 통해 주한 미군과 육·해·공군의 주요 무기체계들에게 정보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일단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단말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위력이 강해진다는 메트카프의 법칙(Metcalfe's Law)이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에서는 매일 같이 실현되고 있었다.

영공 수호의 불침번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뛰어난 성능도 감명 깊었지만, 이를 운용하는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의 전대장님을 비롯한 부대원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밤과 낮이 바뀐 가운데도 철책 없는 한반도 영공수호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무에 전념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분들의 노력 덕분에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잠기게 되었다. 총 4기가 전력화된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북한의 흑시 모를 도발에 대비해 완벽한 작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국을 상대하기에는 수적인 면에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과 한중간의 이어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도입과 함께 작전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중급유기의 도입이 절실해 보였다.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AF**



한반도 영공수호의 첨병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



전술조치선(적기 침투시 아군 방공작전의 대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선)을 넘어서려는 적 전술기를 임무중인 공군의 E-737 피스아이가 최초로 발견해냈다. 이어 아군의 전투기가 대응을 위해 긴급 발진한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지만 북한군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낸 피스아이가 있었기에 재빠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실제상황같은 위의 사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의 임무와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 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는 항공기에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하여, 공중에서 조기경보, 항공기 통제, 전장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하늘의 지휘사령부이다. 특히 먼 거리에서 비행하는 적 항공기를 포착해 지상기지에 보고하고, 아군의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오늘날 공중전에서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는 지형 차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뛰어난 수색 및 탐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60도 전 방위 수색이 가능함은 물론, 저고도에서 낮게 비행하는 항공기도 잡아낼 수 있다.

E-X 사업을 통해 도입된 피스아이

공군은 지난 1980년 소요제기를 통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을 추진했다. 특히 걸프전을 통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맹활약을 하면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획득 사업인 E-X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90년 초 부터 시작된 사업은 그러나 1998년 IMF라는 국가적 경제난으로 사업이 일시 보류 되기도 했었다 결국 2006년 11월, 치열한 경쟁 끝에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미국 보잉사의 737 기종을 선정했다. 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우리나라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운용 중에 있고 터키도 운용을 준비하고 있다. 2008년 4월 공군은 E-737이라는 제식 명칭과 함께 피스아이(Peace Eye)라는 별칭을 부여했다. 피스아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감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지난 10월 24일 4호기가 인도되면서 전력화를 완료하였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운용하는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는, 국내 유일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운용 부대이다. 그만큼 부대창설 과정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국내에서 최초 전력화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운용하기 위해, 미 공군과 우리 보다 앞서 동일 기종을 도입한 호주와의 교류는 항공기 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부대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또한 전력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전대 창설 이후 전력화에 필요한 상급부대 및 각종 규정 및 교범 등을 독자적으로 수립해야만 했다. 또한 전력화 과정 중에 기본계약의 한계 상황이 발생하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환과 어려움을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힘든 결심의 과정들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산고 끝에 탄생한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는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대한민국 평화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 항공 작전 지역에서 공중감시, 무기통제, 전장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 12 중앙방공통제소와 연동하여 조기 경보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AF**



“최고의 전문성 갖추기 위해 교육훈련에 매진”

51전대장 장명수 대령 인터뷰

interview

Q 51전대의 창설과 전력화 준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A 공중조기경보통제기라는 전략 자산이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에 동지를 틀기까지, 3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최초 소요제기는 1980년 4월이었고, 본격적으로 부대의 창설이 진행된 것은 2006년 11월 공중조기경보기 획득 사업인 E-X 사업 계약이 체결된 이후입니다. 2008년 9월 E-X 전력화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0년 3월에 창설 준비대가 운영되었습니다. 제가 E-737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10년 3월 창설준비대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창설 준비대의 경우 공군작전사령부 지하 도서관에서 소수의 정예인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전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Q 전대의 구성(조직, 인원)과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51전대는 공군작전사령부 직할 부대로 비행대대, 항공통제대대, 정비대, 임무전산체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현황은 계획되었던 4대의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모두 인수 완료하여 임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Q 처음 창설되는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

A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운용하는 인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조종사와 항공통제사들의 작전 가능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Q 피스아이 전력화 소감은 어떠십니까?

A 다들 아니겠지만 피스아이라는 항공기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부여해 준 이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눈이 되어 달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담겨있죠. 저를 비롯한 모든 전대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운용요원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추겠다는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힘든 과정을 극복해서 기대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 마음이 뿌듯합니다.

Q 피스아이 전력화가 영공방위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A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적 항공기의 동향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적의 의도를 사전에 탐지하고 적절하게 대처가 가능하여 대한민국 안보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영공방위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전력화 이후 작전 가능 단계에까지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A 현재도 정상작전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어진 여타 임무들 또한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 서울 핵안보정상 회의를 비롯한 국제적인 행사를 완벽하게 지원하였고, 사령부 차원의 항공우주작전 및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작전 가능 요원들을 추가적으로 양성하여 완전 작전능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신설 전대이기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A 2010년 피스아이 작전운영 준비팀이 발족한 이후, 제1호기 인수까지 20개월 동안 휴먼지 날리는 허허벌판에서 작전지원시설 기초 공사에서부터 항공기 수락검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묵묵히 노력하며 피스아이의 도입을 위해 힘쓰신 선배 전우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51전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와 같이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Q 51전대의 향후 발전방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A 우선 어떠한 무기체계든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여,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기술력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통해 최고의 능력을 구비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운용하는 다른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갈 예정입니다. **AF**

Peace Eye

〈피스아이 최초 탑승 취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움직임까지
잡아낸다!



■ 피스아이(E-737) 제원

기본항공기	Boeing-737	
최초운영	2010년(호주)	
운영국	한국(4), 호주(6), 터키(4)	
최대속도	853km/h	
기장/기고/기폭	33.6m/12.5m/34m	
제작사	Boeing	
레이더	방식	MESA(전자식) Multi-rol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제작사	노스롭 그루만사
	탐색범위	360도

'하늘의 지휘소' 에 문을 두드리다

수능시험을 하루 앞둔 날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입시한파로 쌀쌀했던 11월 7일, 피스아이 임무 동승 취재를 위해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를 찾았다. 대전역에서 구포역까지 KTX로 두시간, 구포역에서 부대 인근의 경전철 역까지 30여 분이 소요됐다. 군부대의 경우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태반인데, 51전대는 경전철 역에서도 도로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편리한 환경이었다. 수송기를 운용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전투비행단 만큼의 소음이 없다는 것도 독특한 점이었을까. 평문을 통과해 51전대에 닿을 때까지 조금은 특별한 기지의 풍경에 취해 있었다. 깔끔하게 새로 지어진 51전대본부 건물에 도착하자 비행복을 입은 조종사 및 항공통제사들이 51전대 본부와 나란히 지어진 Peace Eye 작전지원센터를 바쁘게 오가며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비행복은 조종사들이 입은 것만 봐왔기 때문에 조금은 색다른 느낌이기도 했다.

피스아이 임무 동승 취재는 월간공군이 최초였다. 그동안 1~4호기를 인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공개가 제한된 부분도 있었지만, 피스아이는 하늘의 지휘소 역할을 하는 공군의 고가치 자산으로서 보안상 출입통제가 매우 엄격하다. 때문에 동승 취재는 언론사에서도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비행경력이라고는 생도시절 관속비행 40분(실제로 안정된 고도에서 비행기를 조종한 시간은 1~2분에 불과했다)이 전부였던 내가 피스아이 임무요원들과 함께 5시간에 걸친 임무비행을 한 것은 큰 선행이자 영광이었다.



피스아이는 B-737을 어떻게 개조한 것일까?

비행에 앞서 탐승하게 될 피스아이를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대형 태극기를 배경으로 웅장하게 지어진 격납고에 도착해 임무를 준비중인 피스아이 3호기를 만날 수 있었다. 피스아이(E-737)는 미 보잉사의 B-737를 개조해 제작한 것이기에 기본 플랫폼은 민간 항공기와 다를 바 없었다. 정비사들의 도움으로 E-737의 주요 특징 중 모체인 B-737에서 개조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MWS(Missile Warning System)

먼저 항공기 전면에 장착된 MWS(Missile Warning System)를 볼 수 있었다. 레이더를 통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인식해 경고해 주는 장비. 피스아이의 생존성을 높여 준다.



항공기 엔진 구동 발전기

엔진은 B-737과 큰 차이가 없지만 엔진 옆에 발전기가 장착되어 있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전자장비가 많아 전력소모가 큰 E-737을 위해 특수하게 개조한 부분이다.



체프, 플레어(CHAFF, FLARE)

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적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자체 보호 장비인 체프 플레어 장비가 탑재되는 위치. 피스아이의 생존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장비다.



벤트럴핀(Ventral fin)

수직 꼬리날개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안정익(벤트럴핀). B-737에는 없지만 E-737이 레이더와 각종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동체가 무거워 추가 개조된 부분이다.



메사(MESA) 레이더

E-737의 가장 중요한 장비인 MESA 레이더. 레이더 투사 빈도 및 범위를 조절할 수 있어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가 가능하다.



임무요원 좌석

E-737 임무요원 좌석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임무 중에는 콘솔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륙과 착륙시에는 안전을 위해 정면을 바라보고 비행한다. 또한 비행기의 좌우 신뢰 기동 중에도 좌석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좌우로 15도 가량 기울여지게 설계되어 안정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종사와 항공통제사가 조화를 이뤄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한다

피스아이와 짧은 대면을 마치고 다시 51전대로 돌아오자, 비행스케줄이 확정되어 있었다. 박모(薄暮) 시간대 임무 비행이다. 말 그대로 해가 질 무렵의 취약 시간대를 감시하는 임무. 13시가 되자 Peace Eye 작전지원센터에 오늘 비행에 참가하는 임무요원들이 집결했다. 비행 전 임무 브리핑은 임무지휘관(김양규 중령(진), 공사 44기)을 중심으로 조종사와 항공통제사가 함께 참석했다. 조종사와 항공통제사가 함께 비행하는 특성상 피스아이의 임무는 CRM(Cockpit Resource Management)에 기초해 이루어진다. 조종사와 통제사가 자유스러운 대화를 통해 항공기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적시 적소에 문제점을 조치하며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정조종사와 임무지휘관이 각각의 영역을 관장하면서 임무가 진행되는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방식이다. 브리핑은 흡사 토론 수업을 연상케 했다. 대학 수업용 의자를 원형으로 빙 둘러 앉아 오늘 임무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적 상황, 정보상황 등을 공유했다. 항공통제임무요원은 임무지휘관을 비롯하여 무기통제 임무요원과 공중감시 임무요원으로 구분되는데, 오늘 비행에서 본인들이 수행할 임무와 제한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분위기는 자유로웠지만 임무지휘관의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에 긴장하는 항공통제사들의 모습은 어느 임무브리핑과 다를 바 없었다.

▲ 브리핑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피스아이에도 기내식이 있다?

이륙 한 시간여 앞둔 임무요원들이 피스아이 탑승을 위해 콤비차량에 올랐다. 주기장에 도착하자 오늘 비행임무를 맡게 된 피스아이 3호기와 정비사들이 승무원들을 맞이한다. 항공통제사들은 피스아이에 오르자마자 오늘 임무에 사용될 콘솔장비와 레이더를 점검하는데 정신이 없다. 임무지휘관은 내게 오늘 비행의 임무가 대북지역 공중감시와 '12-2차 Max Thunder 훈련 모니터, 항공통제사 평가 등 세 가지라고 설명하면서 임무고도에 오르게 되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배정받은 좌석에서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통제사이자 기내 안전담당을 맡은 이상현 중위가 마치 민항기 승무원처럼 비상상황시 조치방법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었다. 이어서 피스아이의 기내식이 전해졌다. 장시간 임무를 진행하는 요원들을 위해 지급되는 음식이다. 식중독 가능성 때문에 상하지 않는 포장된 음식위주로 제공한다. 피스아이의 비행시간이 대부분 식사시간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빵과 과일로 허기를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행 안전을 위해 정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서로 다른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드디어 이륙! 임무요원들을 태운 피스아이는 가뿐하게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승객용 좌석대신 들어서 있는 임무장비들로 인해 창밖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비행 자체는 여객기를 탑승한 것과 크게 다를바가 없었다. 이륙 후 안전고도에 이를 때까지는 임무요원들도 앞을 보고 콧끝이 앉아 안전하게 임무를 준비했다.



▲ 기내식으로 제공된 바나나를 먹는 임무요원



▲ 임무지휘관으로부터 상황판을 보고 있는 탑승자



한시도 못볼 수 없는 긴장감의 연속

안전고도도 다르자 피스어는 MESA 레이더를 켜고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임무지휘관 김 중령(진)이 너를 불러 헤드셋을 씌워줬다. 귓가에 임무요원들의 소리가 들려 버려 지도를 보지 않아도 지휘소 피스어에 탑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 현명한 터와 같이 피스어 임무수행은 CRM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조요원과 임무지휘관, 또 임무지휘관과 조종사가 지속적으로 자유로운 대화와 정보유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임무지휘관을 보호하는 사임장과 역할을 담당하는 공중감시장교는 각 분야별 임무상황과 레이더 공역 상황 등을 종합해 보고하면서 용버를 판단을 조안했다. 또한 공중에서 레이더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 임무지휘관으로 "레이더에 간섭 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차분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임무이기 때문에 지상에서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공을 함부로 넘볼 수 없다

대복간시 임무 루트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12-2차 Max Thunder 훈련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 한미 연합훈련인 Max Thunder 훈련 상황을 분석하면서 피스어가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비록 이들은 훈련에 참여한 역할이었지만 향후에는 훈련을 직접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훈련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한쪽 콘솔에서는 무기통제사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고 있었다. 무기통제 임무는 지상의 MRC에서 할당받아 진행되었는데, 공중에서 이 루트가 이루어지는 큰 긴장이 엮였다.

본격적인 대복간시 임무 루트에 진입하자 공중감시수들의 눈이 긴장감이 배어난다. 공중감시수들은 각자의 구역에 대해 임무 시간 중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임무에 집중한다. 한시도 눈을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편인원을 제 께 탐색해 중간중간 피대를 해준다. 다행스런게도 이번 임무에서는 민항기를 제 의하고는 특별한 적의 움직임은 없었다. 임무지휘관은 고도에서 레이더를 조사하기 때문에 저고도 항행에 대한 포착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설명해 주었다. 현재 사령관 보았지만 보았지만 소개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거미줄 같은 레이더와 첩벽 같은 공중감시수들 덕분에 적들이 함서리 우리 영공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피스어가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할 무렵, 조종석 내부를 볼 기회가 주어졌다. 비행대대장 김해성 중령(운사 407)이 점조종석에 앉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장시간 비행에 따른 어려움은 없나고 묻자 엄연히 해야 하는 임무인데 어려움이 어디 있었냐며 선수사례를 친다. 임무성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임무지휘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5시간대 조종사들과 항공운용사들은 새벽과 밤에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깨를 갖고 있지만, 취재를 하는 내내 힘들다는 내색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5시간대 조종사들과 항공운용사들은 새벽과 밤에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깨를 갖고 있지만, 취재를 하는 내내 힘들다는 내색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피스어가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할 무렵, 조종석 내부를 볼 기회가 주어졌다. 비행대대장 김해성 중령(운사 407)이 점조종석에 앉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장시간 비행에 따른 어려움은 없나고 묻자 엄연히 해야 하는 임무인데 어려움이 어디 있었냐며 선수사례를 친다. 임무성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임무지휘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5시간대 조종사들과 항공운용사들은 새벽과 밤에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깨를 갖고 있지만, 취재를 하는 내내 힘들다는 내색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까 걸사드린다. AF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탑승자들을 위해 비행탑승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었다. 1시간 동안의 비행이 끝나고 승무원들의 노고를 이해하기 위해 축하를 건네고 싶었다. 임무 성공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비행탑승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었다. 1시간 동안의 비행이 끝나고 승무원들의 노고를 이해하기 위해 축하를 건네고 싶었다. 임무 성공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비행탑승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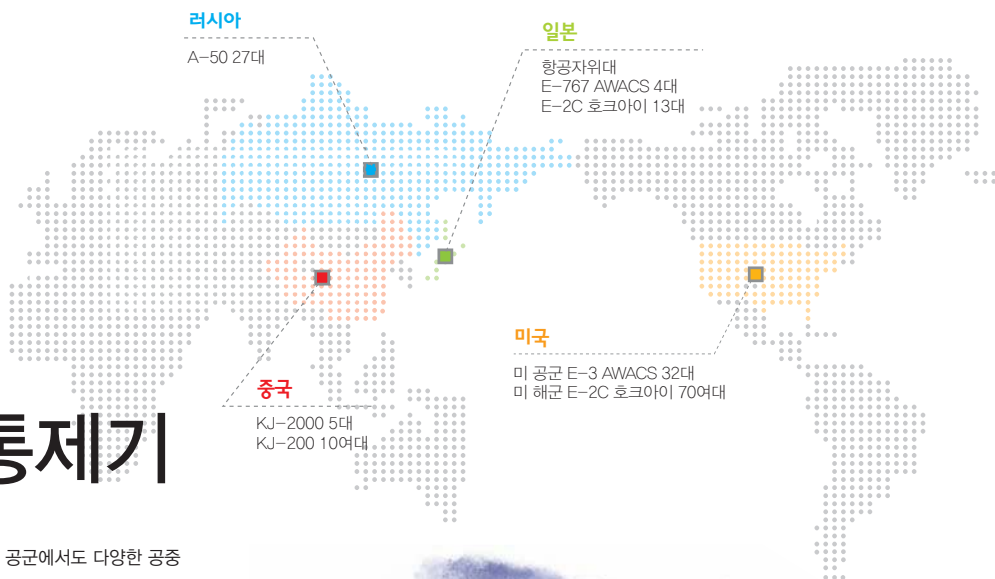


임무를 마치고 피스어 임무를 시작한 후 비행대대장 김해성 중령(운사 407)이 점조종석에 앉아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주변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일·중·러의 각국 공군에서도 다양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운용 중에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경우 각국간의 첨예한 영토 분쟁으로 인해, 적의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기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대표하는 E-3 센트리 에이웍스

최초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제2차 세계대전 말에 등장하게 된다. 미 해군은 일본군의 가미가제 특공대에 대비하여, 레이더를 비행기에 탑재한 TBM-3W라는 공중조기경보기를 운용하였다. 이후 레이더와 컴퓨터 그리고 전시(display)기술의 발전으로, 지휘통제기능이 추가된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개발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대표적인 것이, 미 공군이 운용중인 E-3 센트리 에이웍스(AWACS :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기이다. E-3 센트리 에이웍스는 1977년부터 68기가 생산되었다. 개발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나토(NATO)와 영국, 프랑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E-3 센트리 에이웍스기를 운용 중이다. E-3 센트리 에이웍스기는 걸프전 당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다국적 군이 기록한 총 40기의 격추기록 가운데, 38기는 E-3 센트리 에이웍스기의 지휘통제하에 격추되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E-767 에이웍스기

일본 항공자위대는 1980년대부터 13대의 E-2C 호크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운용했다. 그러나 보다 큰 작전행동반경과 지휘통제능력을 가진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0년대 초 E-3 센트리 에이웍스기의 획득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E-3 센트리 에이웍스기의 플랫폼인 707 여객기의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767 여객기를 플랫폼으로 한 E-767 에이웍스기를 1998년부터 도입하게 된다. 보잉사가 제작한 E-767 에이웍스기는 노스롭 그루만사의 AN/APY-2 PESA(Pass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를 탑재했다. AN/APY-2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약 800km로 알려져 있으며, 통상 탐지거리는 약 400km이며, 탐지 범위 안에 있는 600여 개의 목표물을 탐지하여 그중 200개의 목표물을 식별 및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공징 계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중국도 다수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운용 중이다. 2006년 1월 공징(空警 : KongJing) 2000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징 200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구성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부대를 발족시켰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이스라엘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이스라엘과 비밀리에 기술 구매 방식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자체 개발하게 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용 중인 공징 2000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러시아 일류신사의 IL-76 수송기를 플랫폼으로 한다.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약 470km로 알려져 있으며, 5대가 생산되어 운용 중이다.



러시아 공군의 베리예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베리예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IL-76 수송기를 플랫폼으로 개발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장거리 공중 목표를 탐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동서냉전이 심화된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B-1 폭격기가 구소련의 새로운 위협이 되자, 이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50 공중조기경보기는 1980년 최초 비행에 성공하여 1984년부터 방공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까지 40여 대가 양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현재 러시아 공군에는 10여 대 정도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리예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핵심장비는 베가 설계국이 개발한 슈멜(Schmel)-M 감시추적레이더 시스템이다.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800km, 동시에 추적 가능한 목표는 200개로 알려져 있다.





연말특집 뉴스 모니터 병사가 선정한
‘2012년 공군 뉴스 TOP 10’

나의 근무지는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공보과. 오늘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모든 공군인의 애독지인 ‘오늘의 주요보도’를 인트라넷에 탑재한다. 수시로 통신사인 연합뉴스 단말기에 공군 기사가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국방일보의 공군 기사를 분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한 해 동안 “내 눈을 거치지 않은 공군뉴스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접했던 수많은 공군뉴스 중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은 10가지를 뽑아봤다. 10대 뉴스 선정에는 공보과원 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셨다.

10위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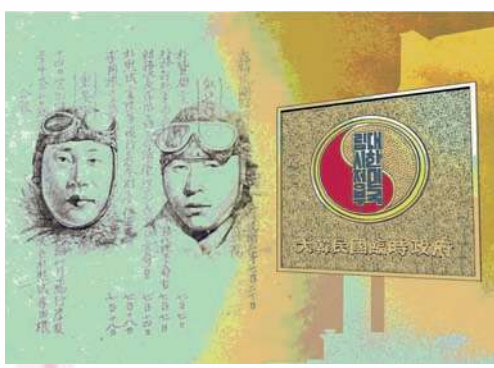


군 유일의 고등교육 기관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항공과)가 산학연계형 전문계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MEISTER 高)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항공과학고는 3년 동안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항공기술전문교육과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다. 이번에 항공·전자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서 국내 최고 전문 기술을 갖춘 ‘명장’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선정 이유 : 1972년 1기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2011년 40기 첫 여학생을 배출하는 등 발전을 거듭해 온 항공과학고. 마이스터고 지정을 계기로 우수한 공군 부사관을 지속 양성하고, 항공기술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해 보면서 10위에 랭크.

9위 너는 아느냐, 1949년 10월 1일 이전 공군의 역사를...



공군은 지난 2월 9일 (목), 공군참모차장 주관으로 ‘항공 독립운동사 정립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일제 강점기 당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항공분야에서 활동한 선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섰다. 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Willows 비행학교 다큐멘터리 제작’ 등 총 9가지의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항공 독립운동을 공군 역사에 정식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선정 이유 : 1949년 10월 1일에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됐지만 그 이전 일제강점기 때부터 항공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노력했던 선각자들이 있었으며 그분들의 활동 역시 공군의 역사라 생각한다. 항공 독립운동사가 완벽히 정립된다면 공군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장병들의 역사의식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발걸음이 더욱 기대되는 항공 독립운동사 정립, 9위!

8위 최첨단 공중환경적응 훈련장비 도입



공군항공우주의료원이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를 신축하고, 최첨단 공중승무원 비행환경 적응 훈련장비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신형 장비는 실제 비행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조종사의 경력과 임무

를 고려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신형 가속도내성 강화장비는 F-15K 조종석과 한반도 지형을 구현한 시뮬레이션 기능뿐만 아니라 2초 만에 15G(중력의 15배)를 도달하는 성능을 갖췄다.

■ **선정 이유** :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 한계 상황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훈련 장비가 업그레이드되었다. 항공의료원이 공중근무자의 특수 건강 검진과 우주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항공우주의학의 메카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며 8위에 배치!

6위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치열한 삶과 사랑, 영화 R2B 개봉



8월 15일(수), 영화 'R2B: 리턴 투 베이스'가 개봉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한반도에서 일어난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가정해 제작된 이 영화는 국방부와 공군의 지원으로 실제 F-15K 전

투기와 공군기지를 촬영했다. 미국 할리우드의 항공 전문 촬영팀 '올프에어'를 데려와 촬영하여 화제를 모았으며 스펙터클한 공중신으로 새로운 항공영화의 역사를 썼다는 찬사를 받았다.

■ **선정 이유** : 우리 공군이 적극적으로 제작을 지원한 영화다. 신세경, 정지훈, 유준상, 이하나 등 화려한 캐스팅, 실제 작전을 방불케 하는 배우들의 열연, 영화 속 등장하는 F-15K의 아찔한 고공전투신 등 한 순간도 눈을 땔 수 없었다. 흥행성적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6위!

7위 공군 근무복 24년 만에 변경



공군 근무복이 24년 만에 변경되었다. 기존의 앞가리개형 상의에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며, 기존 점퍼 형태의 병사 외투가 더블버튼 반코트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시야 확보와 휴대 및 보관에 편리한 거리스모를 근무모로 채택하여 실용성을 극대화했고, 간부용 스웨터도 추가해 기온에 맞춰 탄력적으로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 복제개선은 공군이 '78년까지 유지한 고유의 복제를 되살려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 **선정 이유** :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에 기다리던 나와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뒀기를 결심한 듯 걸음을 옮겼다. 한 발, 두 발, 세 발. "저기요..." 입술을 댄 그녀.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전화번호? 애인 있어요? 우리 봤던 적 있죠?' 철나의 순간 갖은 상상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3번 출구 가려면 어디로 가야돼요?" 웃지 말자. 이전까지의 공군 병사 근무복을 입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더 이상 역무원, 경비원과 헛갈릴 일 없어서 기분 좋으니 7위!

5위 공군의 전투기를 빼닮은 구자철 선수, 공군홍보대사로 위촉



공군은 8월 16일(목),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구자철 선수(23세, FC 아우크스부르크)를 공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중원을 지배하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구자철 선수는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적 수비진을 압박, 공격하는 모습이 마치 고성능 레이더로 영공을 감시하며, 강력한 정밀유도무기로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공군의 하이(high)급 전투기를 꼭 빼닮았다.

■ **선정 이유** : 한라봉을 닮은 귀여운 외모, 감성 충만한 트위터, 그러나 경기장에서는 투지 넘치는 승부사, 무엇보다도 한일전에서 빼기골을 넣은 영웅. 그런 구자철 선수가 공군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구 선수가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이미지가 공군에 더해졌다. 일단 나부터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니 말이다. 2013년에 더욱 비상하는 구자철 선수와 공군의 모습을 기대하며 5위에 낙점!

4위 제1회 하늘사랑 장학금 전달식



1월 19일(목) 공군은 조종사들의 의로운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유자녀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장학사업의 첫 발을 내디뎠다. 제1회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총 45

명에게 3,72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하늘사랑 장학재단」은 2010년 5월故 박광수 중위(82년 7월 순직)의 부모가 28년간 모은 유족연금 1억원 전액을 순직 조종사 유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을 기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18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 선정 이유 : 2010년 창립 이래 꾸준히 장학기금을 마련했던 하늘사랑 장학재단의 첫 장학금 전달식이라는 데서 의미가 크다. 비행업무 중 순직한 조종사들의 유자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아버지의 숭고한 애국심을 이어받아 그들 역시 이 사회에 기여할 인재로 자라날 것이라 생각하니 내 마음이 괜히 뿌듯하다. 훈훈한 마음에 4위로 선정!

2위 피스아이 전력화 완료!



올 한해 항공전력 분야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E-737) 최종호기의 도입이다.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 피스아이 4호기는 10월 24일(수) 공군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에 도착해 공군에 인도되었다. 피스아이는 반경 500km 내의 해상과 지상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으며, 지상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하는 저고도 항적에 대한 공중감사가 가능해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북한 특수부대까지 식별할 수 있다. 이로써 공군의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통제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 선정 이유 : 한반도 전역을 꼼꼼히 감시할 수 있는 피스아이가 도입 완료됐다고 하니 대한민국 공군의 한 사람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믿음직스럽다. 언제나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든든한 그들에게 은메달을 주고 싶다.

3위 TA-50(LIFT과정) 전력화



LIFT : Lead-In Fighter Training, 전투기입문과정. 현행 비행교육체계는 KF-16을 이용한 '기종전환 및 작전가능 훈련(CRT : Combat Readiness Training)'을 실시하고 있으나 TA-50 전투입문 훈련기가 도입되면 작전가능 훈련의 대부분을 LIFT과정으로 대체하고 KF-16과 F-15K는 주임무에 전념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기존 전투비행대에서 전투기를 이용해 CRT 훈련을 실시하던 것을 TA-50을 활용한 전투기 입문과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일선 전투부대 전투기들의 비전투 임무 운용소요를 크게 줄였다. TA-50과 전투기 입문과정의 전력화로 우리 공군은 KT-1, T-50, TA-50으로 이어지는 선진비행교육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F-15K 조종사 양성기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선정 이유 : 일선 전투기를 교육훈련에, 전투조종사를 훈련 교관으로 장기간 활용한다는 것은 교육과 작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것이다. 이번 TA-50의 전력화는 전투기가 훈련 목적 등으로 운용되는 소요를 크게 줄여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공군의 실질적인 전력증강 효과를 가져왔다는 의미가 크므로 3위에 랭크했다.

1위 블랙이글스 와딩턴에어쇼 최우수상, RIAT 최우수상, 인기상 수상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영국의 와딩턴(Waddington), 리아트(RIAT : Royal International Air Tattoo), 판보로(Farnborough)에서 개최된 국제에어쇼에 참가했다. 해외 에어쇼 참가가 처음인 블랙이글스는 영국 와딩턴 에어쇼에서 「2012 최우수 에어쇼상」을 수상하였으며, 리아트 에어쇼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팀에게 주어지는 「The King Hussein Memorial Sword」와 RIAT 특별회원들이 선정한 최고 인기상인 「The 'As the Crows Flies' Trophy」를 잇따라 수상하며 대한민국 공군과 국산 항공기 T-50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 선정 이유 : 처음 참가하는 해외 에어쇼와 낯선 환경, 적응하기 어려운 사차,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등등..... 하지만 블랙이글은 이를 당당히 극복하고 마침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대한민국 공군과 국산 항공기 T-50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 T-50 수출에 청신호를 밝혀주었고, 국내에서 열린 에어쇼 역시 성황리에 마쳐 국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올해 가장 핫(hot)한 공군뉴스 1위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까? **AF**

살맛나는 병영문화 함께 만들어요!



■ 일과 끝난 뒤 병사들의 생활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풍경!

각자의 업무로 바쁘고 지쳤던 하루, 생활관에 돌아와 폭 쉬며 내일을 준비하고 싶지만 계급이 낮은 병사들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일부 선임병들이 군기를 잡는답시고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잔뜩 경직된 상태로 있다 보니 어색한 말과 행동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병장과 이병은 텔레비전을 보는 자세가 다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휴식을 취하며 심신의 안정을 찾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할 생활관에서의 일상이 '업무의 연장', '또 다른 스트레스'로 여겨진다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 엄정한 군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과장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모습!

군기 잡힌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상관과 대화할 때 대성박력으로 소리를 지른다면, 오히려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예의와 절도를 지키되 평상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군기 잡힌 모습이 군이 과도하게 경직되거나 딱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과 후의 충분한 휴식은 임무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원동력!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마치고 나면 마음 편히 쉬고 싶고, 때로는 군기와 계급이라는 딱딱한 질서를 잠시 내려놓고 따스한 동료애와 유대감을 느끼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일과 후의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심신에 활력을 가득 채우면, 임무 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어 더 큰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AF



6만 공군인 모두가 즐겁고 활기차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살맛나는 병영문화가 공군 내에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노력해 나갑시다!

포토프레임@AF

해발 1,175m에 벌어진 풋살 대결의 승자는?

참모총장은 지난 11월 2일 격오지에 위치한 8979부대와 8948부대를 방문해 임무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8979부대에서는 장병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임무수행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8948부대에서는 장병들과 운동을 함께하며 팀워크를 다졌습니다. 승자와 패자는 없지만 해발 1,175m에서 벌어진 참모총장과의 풋살 대결은 부대 장병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블랙이글 조종사 故 김완희 소령 영결식

참모총장은 지난 11월 17일 비행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블랙이글 조종사 故 김완희 소령의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 분향하고 고인의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故 김완희 소령은 공군사관학교 51기로 F-5 교관조종사로 활약하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블랙이글 소속으로 활동해 왔으며, 올해 9월 특수비행 자격을 획득해 9회에 걸쳐 에어쇼를 펼친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보통신 발전 국제세미나 주관, IT 분야 전문가 상호협력 당부

참모총장은 지난 11월 9일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2012년 공군 정보통신 발전 국제세미나를 주관했습니다. 공군과 연세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 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주·사이버영역에서의 공군의 역할을 감안할 때 민·군 IT 신기술 융합은 공군력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국가 IT 산업 발전과 공군 전력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조연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AIR FORCE MONTHLY

2012. 12. NEWS

'12-2차 맥스선더 훈련 적 핵심 표적 무력화, 초전에 끝낸다!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사령부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미 연합 훈련인 '12-2차 맥스선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조종사와 정비사 등 720명이 참가했으며, 적의 기습 공격 상황을 가정해 공중에서 韓美 전투기 62대가 동시에 합동 대규모 공격 편대군 훈련을 펼치는 등 유사시 도발원점까지 타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공사 첫 외국인 '대대장 생도' 탄생
외국군 수탁교육 18년 만에 최초**



공군사관학교 4학년 타왓차이 텡생께오 생도(태국, 26세)가 최초의 외국군 대대장 생도가 되었다. 외국군 수탁교육 18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대대장 생도는 320여 명에 달하는 대대원을 지휘하며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직책으로, 전대장 생도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다. 타왓차이 생도는 우등상을 두 번이나 받고 현재 상위 4%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모범적인 생도 생활을 해왔다. 현재 공군사관학교에는 태국·일본·필리핀·터키·몽골·베트남 등 6개국 10명의 생도가 교육을 받고 있다.

**17비 156대대 해편 앞둔 마지막 비행
24년간 영공방위 선봉 역할 수행하고 역사 속으로**



대 항공기들은 남은 2개의 대대 전력으로 활용된다.

17전투비행단 156전투비행대대가 12월 7일로 예정된 해편을 앞두고 마지막 비행을 했다. 156대대는 '88년 청주에서 창설되어 '91년 수원기지로 이전했다 2001년 현재 청주기지로 원복했으며, 7만 시간에 걸친 비행기록을 남기며 영공방위 최일선에서 임무를 담당했다. F-4E 항공기 노후화로 운용 가능한 항공기 수에 제한이 생기면서 해편이 결정되었다. 156대대의 해편으로 F-4E를 운영하던 비행대대는 2개로 줄어들었으며, 운용 가능한 156대

**작전사, 항공의무후송훈련 실시
환자를 후방 지원 병원으로 이송하라!**



및 응급처리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어 실시되었다.

공군작전사령부는 지난 11월 8일과 9일 항공의무후송 요원들의 전·평시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항공의무후송훈련을 실시했다. 공군 5전술공수비행단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간호장교와 항공의무사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항공의무후송은 전·평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이다. 훈련은 임무 체크리스트 작성 검토, 탑승절차

**38전대·美 8전비, 최초 연합 작전준비태세 훈련 실시
전시 연합운영체제 구축**



연합운영 체제를 구체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공군 38전투비행전대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美 8전투비행단과 한미 연합 작전준비태세 훈련을 실시했다. 작전준비태세훈련을 미군과 연합으로 실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양국 공군부대는 폭발물 처리 훈련을 비롯하여 화생방 제독, 대량 환자 구호, 항공기 제독, 비상급유, 기지방호 훈련 등을 연합으로 수행했다. 38전투비행전대장 백은성 대령은 "전시

**작전사, 공용화기 사격대회 첫 개최
19개 부대 참가, 16전투비행단 최우수 부대 영예**



작전사령부가 최초로 공용화기 사격대회를 개최했다. 육군 백일 사격장에서 지난 10월 22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400m 표적에 대해 K-6, M-60, K-3 등의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으며, 총 19개 부대에서 참가해 16전투비행단이 최우수 부대의 영예를 안았다.

아들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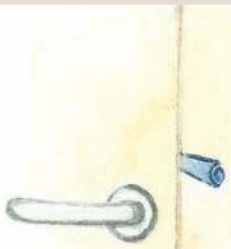


인도의 성자(聖者)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948)는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어렸을 적에는 그저 일반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간디가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양고기를 굽고 있는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글지글거리는 소리와 하얗게 피어오르는 연기,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까지. 간디는 어쩌나 양고기가 먹고 싶었던지 궁리 끝에 집에 돌아와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서 장롱을 뒤져 동전 몇 푼을 꺼낸 뒤, 부리 나케 상점으로 달려가 고기 몇 점을 사 먹은 것이지요.

몰래 맛본 양고기가 너무 맛이 있어서 단숨에 먹어치우기는 했지만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게 계속 마음에 걸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건 내 마음이 양심에 자꾸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야. 이렇게 잠을 설치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할 거 같아.’ 하지만 시간은 이미 한밤 중, 아버지께 찾아가 직접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간디는 작은 종이조각에 몇 줄을 적은 뒤 그것을 돌돌 말아 아버지의 침실 문틈에 끼워 넣고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에서 깬 간디는 어쩐지 아버지가 단단히 화가 난 모습으로 달려오실 것같은 예감이 들어 급히 아버지의 침실 쪽으로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꽂아두었던 종이조각은 이미 없어진 뒤였습니다. 문을 삐뚤 열어 몰래 방안을 엿본 간디는 자신이 쓴 편지를 읽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죄송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간디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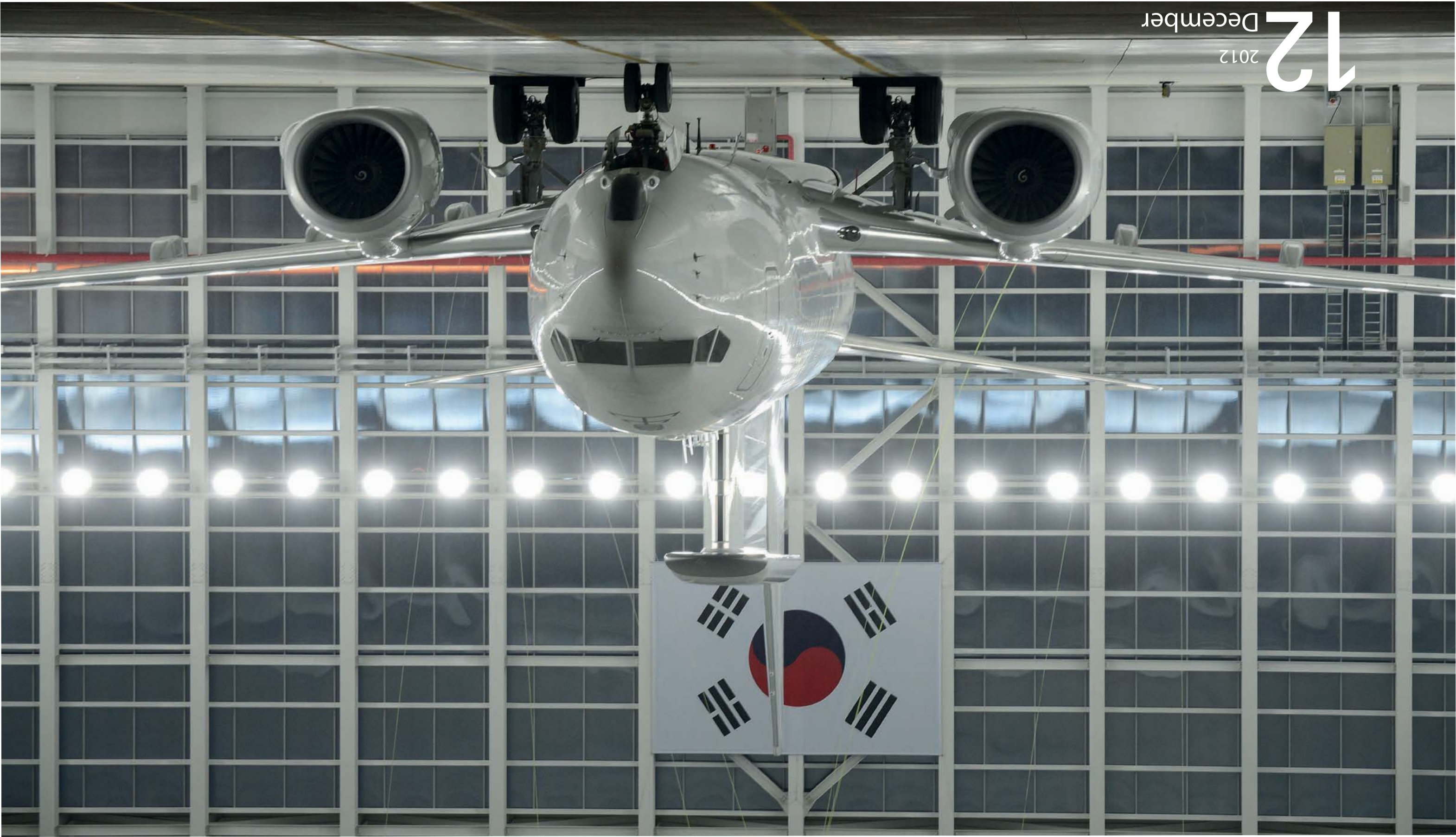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저를 벌해 주세요. 제가 나쁜 잘못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를 품안에 꼭 껴안아 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뜨거운 사랑이 방 안을 한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해기지의 빛나는 밤

하늘을 지키는 우리의 임무는 낮밤이 따로 없습니다. 낮에 보여주는 생생한 느낌의 항공기도 멋스럽지만 어둠이 깔린 비행기지에서 만나는 항공기들도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드는 쌀쌀한 날씨지만 별빛 달빛 가득한 빛나는 밤에 만난 피스아이와 C-130 수송기를 뷰파인더에 담아봤습니다.



12
2012
Dec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²⁰¹²
DEC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하늘을 향한 꿈, 우주로 향한 도전
한국항공소년단



가입문의

한국항공소년단 홈페이지

<http://www.yfk.or.kr>

한국항공소년단 지방연맹 안내

- 서울연맹 070-8129-8856
- 경기연맹 02-953-7543
- 충북연맹 043-224-5599
- 전북연맹 070-8821-7016
- 부산·경남연맹 051-364-5988
- 대전·충남연맹 042-482-1618
- 대구·경북연맹 053-422-8875
- 광주·전라연맹 062-374-5825

홍보대사 Zoom In



구자철 선수,故 김완희 소령 추모

구자철 선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김완희 소령을 추모하는 글을 남겼다. 구자철 선수는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세요.”라는 메시지와 故 김완희 소령을 조문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함께 올려 멀리서나마 고인의 순직을 추모했다. 이날 구자철 선수가 올린 메시지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리트윗을 통해 추모에 동참했다.



구자철 선수, 부상 복귀

발목 인대 파열로 두 달여간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던 구자철 선수가 성공적인 복귀 신고식을 치렀다. 구자철 선수는 지난 11월 3일 독일 하노버 AWD 아레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하노버와의 10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22분 교체 출장해 23분간 경기를 소화했다. 이어진 11라운드에서는 선발 출장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부상 이전의 날렵한 모습을 보여줬다.

구자철 선수 시즌 첫 골 작렬!

부상에서 완벽하게 복귀한 구자철 선수가 드디어 마수걸이 시즌 첫 골을 신고했다. 지난 17일(한국시간)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열린 12라운드 경기에서였다. 0-2로 뒤진 채 전반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터진 단비같은 골이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발리슛으로 깔끔하게 골망을 흔들었다. 90분간 풀타임을 소화하며 활약했지만 팀은 안타깝게도 2-4로 패했다.

구자철 복귀에 소속팀 꼴지 벗어날까?

구자철 선수가 두 달간 팀을 떠난 사이 소속팀 아우크스부르크는 분데스리가 1부 리그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34경기 중 12경기를 치른 11월 18일 현재 아우크스부르크는 1승 3무 8패로 18개팀 중 18위다. 구자철이 복귀한 이후 세 경기에서도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3연패를 달리고 있다. 분데스리가 17, 18위 팀은 다음 리그에 자동 강등되기 때문에 구자철 선수의 활약이 더욱 절실한 지점이다.

공군 홍보대사 서포터즈 1기 발대식

구자철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군 홍보대사 1기 서포터즈'가 공식 출범한다. 공군장병 및 군무원, 군가족 67명으로 구성된 공군 홍보대사 서포터즈는 11월 30일 공군기상단에서 워크숍을 갖고 임원진을 선출한 후 12월 말 구자철 선수 귀국에 맞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서포터즈들은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구자철 선수를 응원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AF**



가디언즈

* Hollywood English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

* 인생은 아름다워

첫사랑은 떠나고
현실적인 사랑이 다가왔던 2012년

* Air-Supply

그대안의 블루

* Art in Everyday

12월의 문화행사

* Preview

36.5

Culture



‘수호천사 드림팀’이 출동한다

“비전이란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기술이다(Vision is the art of seeing what is invisible to others).”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 조너선 스위프트는 ‘비전’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때 비전은 ‘상상력(imagination)’으로 바꾸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상상력이란 머릿속으로 혹은 마음속으로 독창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고, 비전은 그 상상력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는 기술이지 않을까요? 드림웍스가 만든 애니메이션 대작 <가디언즈 Rise of the Guardians>(2012)는 조너선의 명문장에 매우 잘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드림웍스 제작진이 이 작품에서 펼치는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백문이 불여일견(Seeing is believing)’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싶군요. 왜 아니겠습니까. <가디언즈>의 제작총지휘자가 <판의 미로>를 만든 기예르모 델 토로이니까요.

‘겨울의 영혼’ 잭 프로스트의 소환

<가디언즈>는 윌리엄 조이스가 쓴 <어릴 적 수호천사 The Guardians of Childhood> 시리즈가 원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수호천사들이 등장해 판타지 모험을 펼치는 걸까요? 영화는 지팡이로 모든 걸 얼려버리는 동장군 잭 프로스트(Jack Frost)의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잭 프로스트가 ‘겨울의 영혼(the spirit of winter)’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걸? 역시! 네, 좋습니다. 그는 ‘재미(Amusement)의 가디언’이기 때문에 구속을 싫어하고 자유를 즐깁니다. 눈을 뿌리고, 빙판을 만들어 아이들이 신나게 놀도록 돕는 게 그의 역할입니다.

자, 뜬금 없이 듣고 그의 독백을 들어보지요. “어둠은 내 모든 기억의 시작이다(Darkness is the first thing I remember).” 그에게 어둠에 얽힌 아픔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복선처럼 들리지요? 독백이 이어집니다. “깜깜했고 추웠으며 두려웠다. 그러다가 달을 보았다. 무척이나 크고 밝은 달이었다. 마치 어둠을 쫓아내려는 것처럼! 어둠이 사라진 뒤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무슨 운명으로 난 그곳에 있었던 걸까? 정말 알고 싶다. 언제쯤 그걸 알게 될까?” 그게 어떤 기억인지, 그곳이 어디인지 궁금해하지요?

재미, 기쁨, 희망, 호기심, 꿈의 수호신

독백이 끝나면 300년 뒤인 현재의 시점으로 카메라가 점프하고, 부활절 토끼(Easter Bunny)가 등장합니다. 그는 ‘희망(Hope)의 가디언’입니다. 부활절 토끼는 영화에서 토끼 굴을 통해 다른 세상을 오가는데요, 눈치를 채셨죠? 맞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대한 오마주(homage, 경배)이기도 하답니다. 잭 프로스트는 부활절 토끼가 데려온 설인들에게 납치돼 산타 앞에 소환됩니다. 산타는 ‘기쁨(Joy)의 가디언’이지요. 그런데 산타의 카리스마가 범상치 않군요. 게다가 굵은 두 팔뚝엔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못된 아이(Naughty)’이고 나머지는 ‘착한 아이(Nice)’입니다. 산타의 나라에 마침 ‘이빨 요정(Tooth Fairy)과 잠의 요정(Sandman)’도 와 있습니다. 각각 ‘호기심(Wonder)의 가디언’과 ‘꿈(Dream)의 가디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다섯 가디언은 아이들의 Amusement, Joy, Hope, Wonder, 그리고 Dream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들이겠지요. 그렇기에 미국 포스터의 영어 홍보문구도 ‘Legends unite!’이지요. ‘전설적 수호천사들이 뭉친다’는 뜻이니깐요.



“창의력이란 Connection, 즉 연결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의 총장이자 디지털 아트에 대한 존 마에다가 창의력에 관해 내린 정의를 소개하려 합니다. [질문]-“총장님께 창의력이란 무엇입니까?” [대답]-연결(Connection)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디언즈>는 Connection의 방식을 통해서도 창의력을 보여줍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캐릭터들을 절묘하게 연결해서 새롭고 창의적인 인물구도를 갖춘 이야기를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잭 프로스트가 수호천사들에게 합류한, 아니 합류당한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의 잠 속에 들어가 악몽을 심어주는 피치(Pitch)의 악몽을 제압하기 위함입니다. 피치는 ‘악몽(Nightmare)의 마왕’입니다. 그는 ‘악몽’이라 불리는 암컷 말(mare)을 이끌고 다니며 잠든 아이들의 행복한 꿈을 무서운 꿈으로 바꿔버린 다음 이렇게 위협합니다. “너의 악몽을 맞보아라(Feel your fear).” 피치의 목적은 아이들이 산타, 잭 프로스트, 이빨 요정, 잠의 요정, 그리고 부활절 토끼의 존재를 믿지 않게끔 최면을 거는 겁니다. 즉, 아이들에게서 ‘상상력’을 뺏아가려는 야욕인 것이지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지켜주러 출동!”

피치는 수호천사들 중에서 잭 프로스트를 가장 경계합니다. 그래서 피치는 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로 합니다. 문제는 잭 프로스트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잭은 그걸 이빨 요정의 왕국에서 알아냅니다. 이빨 요정은 모든 아이의 부러진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부러진 이에 담긴 아이들의 기억과 추억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잭은 자신의 기억을 알아내곤 경악합니다. 그걸 몰랐더라면 잭은 항상 강할 수 있을 텐데, 악랄한 피치의 수작에 걸려든 결과 300년 전의 아픈 기억을 보게 되고, 결국 힘이 약해집니다. 그 기억의 내용은 스포일러여서 가려둡니다.

“아이들이 이전 더 이상 나의 존재를 믿지 않아(They don't believe in me anymore).” 수호천사들이 불안해하며 그렇게 외치는군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더 이상 믿지 않으면 아이들은 꿈도 희망도 잃고, 결국 피치의 회색망이 되기 때문에 수호천사들은 급기야 전쟁을 선포하며 외칩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지켜주러 출동!” 산타의 멋진 썰매와 함께 달리면서 3D의 영상 속에서 활약하는 그들의 무용담은 영화관에서 직접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AF**



“여자들은 다 그래?”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이 세상의 반은 남자로 반은 여자인데도, 미묘한 남녀 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겠는가. 이 책의 저자, 존 그레이는 말한다. “본래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언어와 사고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저자의 명쾌한 비유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남녀관계의 미묘함을 말해 준다. 남자는 여자의 화장품 쇼핑 이야기를,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군대에서 운동한 이야기를 가장 지루해 한다는, 그 알 수 없는 남녀의 차이. 이러한 남녀의 심리는 비단 요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천재작곡가이자 뛰어난 극작가였던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Così fan tutte)〉에도 남녀의 미묘한 심리가 묘사되어 있다.

이야기는 18세기의 나폴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숙한 여인 ‘피오르딜리지’와 그녀의 여동생 ‘도라벨라’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젊은 장교 ‘굴리엘모’와 ‘페란도’. 나폴리 해변의 정원에서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는 연인들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이처럼 멋진 남자는 없을 거라고 노래한다. 한편 이들 자매를 사랑하는 굴리엘모와 페란도는 나폴리의 어느 카페에 앉아 토론 중이다. 철학자 ‘돈 알폰소’가 시비를 붙여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갈등의 시작은 알폰소의 말 한 마디.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지조 있는 여성들은 저 먼 나라 아라비아의 불사조와 같다.” 그만큼 여성들이 지조를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다. 나이 든 철학자의 빈정거림에 두 남자가 화가 났다. “나의 도라벨라가 그럴 리가 없어.” “나의 피오르딜리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외치는 두 남자는 알폰소와 내기를 하기로 한다. 알폰소의 계획을 따르되, 연인들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곧바로 내기가 시작되었다. 정원에서 약혼자의 사진을 보고 있던 자매에게 알폰소가 달려온다. 그들의 연인이 출정 명령을 받아 곧 연대로 가야 한다는 거짓 소식을 전한 것이다. 약혼자들의 출정 명령에 슬퍼하는 자매는 “매일 편지

를 쓰라.”며 눈물의 이별을 한다. 곧바로 알폰소는 다음 계획을 실행한다. 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속인 두 남자의 얼굴에 수염을 붙이고 ‘알바니아 사람’으로 변장을 시킨 것이다. 연인과의 이별로 슬퍼하는 자매 앞에서 알바니아인으로 변장한 두 남자는 다짜고짜 사랑을 고백한다. 가뜩이나 편치 않은 마음에 외국인이 나타나자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는 당장 나가달라고 한다. 그러자 두 남자는 내심 기뻐하며, 여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에 안도의 숨을 내신다.

그러나 알폰소는 아직 좋아하기는 이르다고 말한다. 이제 다음 단계. 알바니아 남자로 분장한 이 남자들에게 약병을 쥐어주고는 독약을 마시는 것처럼 연기를 시킨다. 두 남자는 자살소동을 벌이며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두 남자가 목숨을 잃을까 걱정이 된 자매는 그들을 측은하게 생각하며 간호하기 시작한다. 알폰소에게 미리 이야기를 들은 하녀도 허둥지둥 달려와 응급처치를 한다. 우스꽝스러운 치료법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두 남자의 진심어린 마음에 동생 도라벨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니의 약혼자인 굴리엘모를 마음에 들어 한다. 하지만 피오르딜리지는 동생의 행동을 나무라며 약혼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군복을 입고 남자 모습으로 변장한 피오르딜리지, 그녀는 직접 전쟁터에 가서 연인을 만나려 한다. 이때 나타난 페란도는 또다시 자살소동을 벌이며 그녀를 설득하고, 남자의 부드러운 고백에 피오르딜리지도 마음을 바꾸고 말았다. 두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약혼녀의 행실에 화가 난 두 남자는 울분을 참지 못하지만, 그럴 줄 알았다는 돈 알폰소는 노래를 부른다. “모두가 여인들을 비난하지만 나는 그들을 변호하고 싶네.” “여자들은 모두 그런 것(Così fan tutte)” 그럼에도 이 자매를 따끔하게 혼내주어야겠다고 생각한 돈 알폰소는 마지막 연극을 준비한다. 하녀에게 결혼 준비를 시키고는, 그녀를 결혼 공증인으로 분장시킨 것이다. 그리고 서로 뒤바뀐 두 쌍의 결혼식을 진행한다. 그런데 네 사람이 결혼서약서를 읽는 순간, 멀리서 군대의 개선을 알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출정을 나갔던 남자들이 돌아




온다는 합창이었다. 너무 놀란 자매는 이 알바니아인들을 숨기려 하지만, 금세 전쟁터에서 돌아온 척 연기하는 남자들은 새하얗게 얼굴이 질려버린 연인들을 보며 반가운 척한다. 당황해하는 여인들과, 매운맛 좀 보라며 즐거워하는 남자들... 이 미묘한 상황은 하녀가 사실을 밝히는 대목에서부터 해결된다. 남자들이 부르는 2중창을 여인들이 받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노래로 이어진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연극이었음이 밝혀진다. 비록 여인들은 변심을 했지만, 그런 마음까지도 사랑하는 남성들은 그녀들을 용서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한바탕 연극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여인들의 마음을 시험해보려는 연극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모차르트의 오페라에 등장한 자매는 남자들의 심리극에 완전히 속고 말았다. 남자들의 끊임없는 구애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대본을 쓴 사람이 '다 폰테'라는 남자 작가라는 사실이 조금 찝찝하다. 어떻게 해서든 여자들을 시험해 보려는 연극이니, "여자들은 다 그래"라는 제목이 나온 건 아닐까. "여자들은 다 그래?" 혹은 "남자들도 다 그래?"라는 연극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이 한 편의 유쾌한 오페라를 보고 나오는 길에도 뭔가 개운치는 않다. 역시 남녀 관계의 심리전은 평생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AF**

※ 인생은 아름다워 코너가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애독해 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사랑은 떠나고 현실적인 사랑이 다가왔던 2012년



며칠 전부터 아는 사람들에게 부쩍 많은 전화가 걸려온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이제는 걸려오는 사람의 이름만 봐도 무슨 일 때문인지 알 것 같다. 그들은 대부분 아이유와 그룹 슈퍼주니어의 은혁과 관련된 일들 때문에 전화를 한다. 그게 진짜냐고, 어떤 관계냐고 말이다. 누군가는 이 사건이 다른 큰 사건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한다.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아이유가 실수로 자신의 SNS에 은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고, 그 사진에서 아이유는 잠옷을 입고 있었다. 소속사는 친한 사이여서 병문안을 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인기 연예인끼리 서로의 집에 가서 편한 차림으로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게다가 아이유는 올해로 만 열아홉살이고, '좋은 날'을 통해 연상의 남자를 사랑하는 노래로 귀여운 여동생 같은 이미지를 만들었다. 아직 어린 여동생 같은 가수가 남자 가수와 사귄다는 느낌을 주는 것부터가 팬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 셈이다.

일부 극성팬 중에는 아이유의 CD를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문제의 사진을 패러디한 게시물이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인터넷에서는 아이유를 비난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타블로의 학력문제를 제기한 '타블로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처럼 '아이유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카페 '아진요'도 생겨났다.

물론 아이유는 자신의 뜻대로 누군가를 사귀거나, 친한 동료 가수를 집에 초대할 수도 있다. 또한 오빠를 좋아하는 소녀라고 해서 연애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이유의 귀여운 소녀 콘셉트가 많은 남성들에게 사랑 받은 것은 연상의 남자를 짝사랑하는, 철부지 소녀의 이미지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대중적으로는 연애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준 아이유가 갑자기 그런 사진을 공개한 것 자체



가 팬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유의 이런 이미지는 아이유의 사생활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아이유와 은혁이 어떤 관계인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또한 실제 사건다 해도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만 열아홉의 여성이라면 누군가를 사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아이유는 누군가를 사귀는 것만으로도 또는 남성 연예인과 가까워 보이는 것만으로도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받는다.

문제의 사진이 공개되기 전, 아이유는 SBS <고 쇼>에 출연해 과거 사건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아무 문제 없을 발언이었지만, 아이유가 말했기에 유독 화제가 됐다. '좋은 날'을 부르며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이라 말하는 아이유는 팬들에게 첫사랑과 같은 이미지였고, 그녀가 이미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팬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뚜렷한 이미지의 힘이 아이유를 스타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아이유는 동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소녀가 된 셈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스타 아이유에게는 위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한 개인으로서의 아이유에게는 마음의 짐을 덜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중 앞에서 늘 첫사랑의 소녀처럼 행동하고, 사생활의 작은 부분도 쉽게 말할 수 없던 상황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인 셈이다. 아이유는 이제 좀 더 자신의 일상을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아이유가 '좋은 날'에서 보여준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갔다면 아이유는 성인이 되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해도 대중 앞에서는 '오빠가 좋은 걸'을 외쳐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아이유는 이런 모습에 대해 꽤 갈등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유가 지금처럼 귀여운 소녀의 이미지를 보여준 것은 '마쉬멜로우'와 'Boo' 등의 노래를 부를 때부터였다. 그 전의 아이유는 중학생의 나이에 어둡고

깊은 감성의 노래 '미아'를 불렀다. 또한 통기타 한 대를 들고 소울 뮤지션 코린 베일리 래의 노래를 부르는 등 깊이있는 음악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좋은 날'의 히트 이후 발표한 2집 앨범은 아이유가 하고 싶은 음악적 색깔이 보다 확실하게 드러났다. 타이틀 곡은 '좋은 날'의 연장선상에 있는 '너랑 나'였지만, 다른 수록곡들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채가 강했다. 목소리는 더욱 짙고 어두워졌고, 노래의 감성 역시 우울해졌다.

당시 아이유는 인터뷰에서 "언젠가 나는 제대로 뒷통수를 칠 가수"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자신이 지금의 이미지와 다른 음악적인 변신을 할 것이라는 다짐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대중에게 아이유는 연약한 소녀처럼 보였지만, 실제의 아이유는 자신의 현재에 대해 냉정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지 않는 어른이었던 셈이다.

'너랑 나'가 수록된 앨범 타이틀이 <Last Fantasy>였던 것은 의미심장하다. 마지막 환상. 열아홉에 내놓은 '너랑 나'는 어쩌면 아이유가 팬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판타지였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 음반 이후 아이유는 SNS를 통해 자신의 속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에게 말을 거는 팬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등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은혁과의 사진을 실수로 공개하는 일이 없었어도 아이유는 언젠가 어른의 모습으로 음악을 하리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됐다.

그리고 그것은 첫사랑 또는 순수의 이미지를 내세우는 시대가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올해 유독 <건축학개론>, <늑대소년>, tvN <응답하라 1997> 등 과거의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인기를 얻은 것 역시 이런 맥락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첫사랑은 떠났다. 그리고 현실적인 사랑이 다가온다. 2012년은 아무래도 그런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AF**

그대안의 블루



이브 클라인_IKB pigment on postal stamps



이브 클라인_IKB128(1960)

“청색은 바다와 하늘을 상기시킨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연세계에서 가장 추상적인 색이다.” - 이브 클라인(Yves Klein)

태양의 고도가 낮아져 지표면이 차가워지면서 안정된 대기는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을 우리에게 선물해준다. 멍하니 그 푸른빛에 시선을 풀어놓고 있자니 문득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블루로 신화적인 청색을 탄생시킨 한 인물이 떠올랐다.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 니스에서 태어나 바다와 하늘을 끼고 살며 세상의 모든 푸른빛을 흡수해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낸 현대미술작가 이브 클라인. 그는 자신이 찾아낸 그 깊고 강렬한 푸른빛에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IKB)’라는 이름을 붙여 특허까지 냈다. 색의 독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위조의 가능성으로부터 그 푸른빛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젖은 상태에서도, 마른 상태에서도 같은 밝기와 농도를 갖는 이 색을 이브 클라인은 세로와 가로로 길이가 각각 78cm, 56cm인 캔버스 위에 롤러로 칠한 뒤, 서로 다른 가격을 매겨 화랑에 내걸었다. 그때까지 주변에서는 ‘최소한 다른 색의 점 하나, 선 하나라도 덧붙이라’는 말들을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매번 한 가지 색만 칠한 단색조의 그림을 그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순수한 색채는 그 자체 속에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는 신념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디어 밀라노의 아폴리네르 화랑을 빌려 같은 빛깔, 같은 크기의 그림 열한 점을 내건 1957년. 이 작품들이 화랑에 내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사람들은 각각의 그림들을 차례차례 감상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작품을 신중하게 골라 사갔다. 전시됐던 열한 작품은 모두 팔렸다. 작가마저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내가 관찰한 가장 놀라운 일은 구매자들이다. 모든 구매자들이 전시된 열한 점의 그림에서 자신의 그림을 고르고 그것에 매겨진 가격을 지불했다. 가격은 당연히 차이가 났다. 이 사실은 그림의 가치가 물질적인 외형이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 이브 클라인(Yves Klein)

이렇게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라는 빛깔로 자신의 청색 시대를 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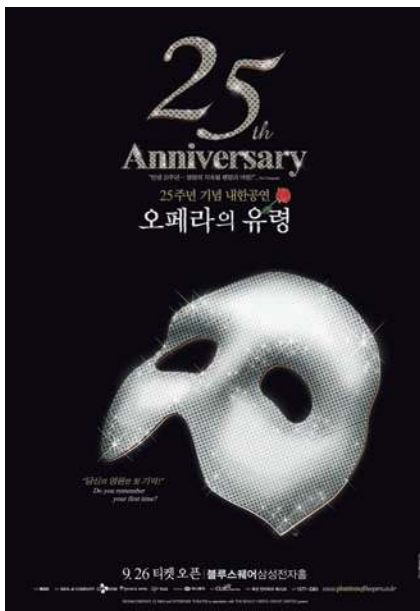
25주년 기념 내한공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을 매혹시킨 불멸의 명작 <오페라의 유령>이 탄생 25주년을 기념해 월드투어 공연으로 한국을 찾는다. 25주년 무대에 걸맞게 이 시대 최고의 팬텀으로 평가 받는 브래드 리틀이 내한한다. 브래드 리틀은 팬텀 역을 2천 회 이상 연기한 전 세계 4명의 배우 중 한 사람이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86년 영국 웨스트 엔드, '88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래 최장기 공연, 최고매출, 최다관객 등 모든 기록을 석권한 뮤지컬 역사의 상징적인 작품이다. 주제곡 '오페라의 유령'에서부터 '밤의 노래' 등 작품을 구성하는 한 곡 한 곡이 모두 명곡이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가창력을 뒷받침하는 18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감동의 여운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230여 벌의 의상이 실 새 없이 바뀌고 20만 개의 유리구슬로 치장한 1톤 무게의 대형 상드리어가 객석으로 곤두박질 치는 2012년 최고의 화제작. 300개 가까운 촛불 사이를 지나는 팬텀과 크리스틴의 나룻배에 올해의 마지막 소원을 실어보자.

- 기간 : 12월 7일~2013년 1월 31일까지
- 장소 :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 가격 : S석 9만원/A석 7만원/B석 5만원
- 홈페이지 : www.phantomoftheopera.co.kr



올 겨울 대학로의 뜨거운 감자! 연극 <키사라기 미키짱>

연극 <키사라기 미키짱>은 아이돌 스타 키사라기 미키가 죽은 지 1년 되는 날 '추모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가 키사라기 미키의 죽음을 둘러싸고 타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범인을 찾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열혈 삼촌팬들의 이야기이다. 특히 영화 <도둑들>로 천만 관객 배우 '오달수'가 출연해 대학로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오달수는 5명의 오타쿠 삼촌팬 중 평소에는 이성적이고 지적이지만 키사라기 미키에 관한 이야기 앞에선 물불 가리지 않고 흥분하는 다혈질의 반전 캐릭터 '키무라 타쿠야' 역을 맡았다. '키무라 타쿠야'는 시종일관 차분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흉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뿜어내며 공연 내내 관객들의 공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이다.

이번 공연은 연극 <웃음의 대학>으로 일본 연극의 한국적인 재해석을 성공리에 보여준 이해제가 연출을 맡았다. 웃음과 감동이 보충된 대목이다. 화려한 무대와 의상이 돋보이는 대형 공연들 속에서 한겨울 군고구마 같은 별미를 원한다면 망설임이 없이 예매해도 좋을 듯하다.

- 기간 : 2013년 2월 23일까지
- 장소 : 서울 대학로 컬처스페이스 엔유
- 가격 : 미키짱석 45,000원/R석 40,000원/S석 30,000원
- 홈페이지 : lovekisaragi.interest.me



겨울철 피부 지키기

* Health Diary

개편호 예고 및 즐거운 인터뷰, 담벼락 공모

* 광고

신년 개편과 함께 월간 「공군」을 떠나는 필진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

* Special Thanks to

반통의 물

* 책마을

Opinion



겨울철 피부 지키기

올해 「공군장병 건강의 시작을 알리며, 1월호」를 집필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 데 벌써 임진년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시간의 빠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다가온다고 들었는데, 금일 오전 기상대 보고에서는 황병산에 눈이 5cm 쌓였다고 들었습니다. 마스크에서는 올해 이른 추위가 시작되어 매서운 겨울이 될 것이라 예보합니다. 강한 한파가 닥치더라도 영공수호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는 공군장병 식구들 모두가 올 겨울 건강하였으면 합니다. 이번달 주제는 겨울이 왔음을 먼저 느끼게 하고 우리 신체에서 최전방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 피부, 겨울철 피부관리를 다루어보겠습니다.

겨울 피부

피부는 겨울이 괴롭습니다. 바람과 추위, 건조함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이 바뀌면서 피부도 서둘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써야 하는데, 만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다양한 피부 트러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우리를 괴롭히는 3대 피부질환을 손꼽으라면, 자율신경의 과민반응으로 인한 홍당무 얼굴 '안면홍조', 아토피 피부염 악화, 마지막으로 피부건조증이 있겠습니다. 이 중 겨울철 낮은 기온과 습도로 인한 건조증은 누구에게나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피부건조증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겨울 피부건조증

겨울철이 되면 공기 중 수분이 줄어들면서 인체의 최전방인 각질층의 수분도 줄어 결과적으로 피부 전체가 건조해집니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을수록 피부내 지방분이 적어 쉽게 피부가 마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외양이 거칠어지고 비늘처럼 각질이 일어나고, 심하면 가려움증도 생깁니다. 이같은 증상이 심해져 생긴 피부병을 건성습진이라 합니다. 건성습진 등 피부건조증을 막으려면 실내온도와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목욕할 때 심하게 때를 밀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과도하게 밀고 비누칠을 많이 하면 각질층의 지방을 없애기 때문에 피부건조가 더 심해집니다. 또한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 목욕 후 피부로부터 수분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피부건조증 관리 및 예방

겨울철에 보습제를 쓰는 것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습제 사용시 주의할 점은 목욕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발라야 합니다. 겨울철 피부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얼음을 비닐로 싸 가려운 곳에 대거나 5분 정도 가볍게 목욕을 하고 그 후 보습제를 발라주면 됩니다. 그래도 가려움을 참을 수 없을 땐 가까운 의무대 및 군병원을 방문, 의료진으로부터 항히스타민제 내지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피부건조증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잦은 목욕을 삼가야 합니다. 피로회복 차원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사우나를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매일 목욕을 하면 피부의 기름막(피지막)이 제거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자초하게 되어 가려움증을 촉진하기 십상입니다. 목욕은 1주일에 2회 정도 적당히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목욕 시간도 총 30분을 넘기지 않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욕시에도 과도한 비누 사용 내지 거친 때타올로 피부를 박박 문지르는 습관을 조심해야 하는데, 기름막은 물론 보호막인 피부의 각질세포까지 모두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 상

추운 겨울 실내활동시 피부건조증을 주의해야 한다면, 혹한기 동계훈련 등의 야외활동시에는 영하의 온도에 몸의 조직이 얼어붙어 생기는 동상을 조심해야겠습니다. 특히 기지외곽 방에 수고가 많은 헌병들 같이 야외에서 수시간 동안 저온에 노출되면 뜻하지 않게 동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주로 귀·손·발 등 노출된 신체 부위에서 흔히 발생하며, 대개 경미한 수준의 손상이나 매우 심한 경우

에는 손발의 일부 또는 다리를 절단해야 할 때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동상 부위는 창백하며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 통증과 함께 화상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알게 얼었을 때는 수시간내에 신체기능에 의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언 정도가 심하면 피부와 그 밑의 조직이 과사되어 회복 불능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동상 관리 및 예방

혹한기에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한복, 장갑, 양말, 신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젖은 의복이나 신발 그리고 너무 꽉 끼는 의복은 피해야 하며 장거리 보행시 땀에 젖은 양말은 자주 갈아 신어야 합니다. 동상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걸렸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상의 응급처방은 언 부위를 빨리 덥혀주는 것입니다. 섭씨 40도 이상의 더운 물에 동상부위를 담그도 피부가 말랑말랑해지고 홍조가 돌 때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온도를 올리겠다는 생각에서 과하게 동상부위를 문지르지 말아야 하며, 물집이 생겼을 때는 억지로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상처부위에 세균감염을 유발, 동상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에는

이제 완전한 겨울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년 중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이 즈음입니다. 겨울철에는 체내환경과 외부환경의 차이가 크므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주의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희망찬 신년을 맞이하며 우리 공군장병 식구들은 '서로'를 챙겨보았으면 합니다. 선배를 위해 건조한 내무실내에 가습기를 틀거나 잠자는 후배를 위해 방에 젖은 수건을 너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야외활동 전 동료들간 서로가 의복을 챙겨주면 아마 올 겨울 공군장병들은 모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계사년을 맞이하여 모든 공군 식구들이 건강을 시작으로 행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AF**

※ Health Diary가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즐거운 인터뷰 ·

만나고 싶은 인물과
만나고 싶은 이유를
500자 내외로 적어서
매거진 블로그를 통해 응모
<http://afzine.kr>

· 담벼락 (백일장) ·

‘새해 소망’을 주제로
1,500자 내외로 작성
매거진 블로그를 통해 응모
<http://afzine.kr>

응모 우수작 및 추천을 통해 '알기 쉬운 공군 이야기' (양장본)



를 드립니다!

신년 개편과 함께 월간 「공군」을 떠나는 필진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



Leadership+

김경섭 한국리더십센터그룹 회장

3년 동안 독자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온 것 같습니다. 리더십, 성공의 개념부터 대인관계 리더십과 이 사회의 문 제까지 다루었지요. 그동안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자본주의 4.0시대에 독자인 공군 리더 여러분들이 소통, 신뢰, 협력의 원칙 중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염원합니다. 성품과 역량을 고루 갖춰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더욱 세계적인 강군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는 헤어지지만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저희 코칭카페에서의 만남을 기억하며 펜을 놓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성공을 돕는 곳에서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World Wide Vision 번역

황성호 예비역 중위

지난 2011년 봄부터 월간공군의 World-Wide Vision을 담당했던 공군 예비역 중위 황성호입니다. 매우 아쉽지만 이번 12월호 기사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군지의 한 코너를 맡아 번역작업을 하면서, 미 공군 장병들의 다양한 작전 임무 그리고 생활상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군의 다양한 실상에 대해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공군 장병 및 독자분들에게 글로써나마 친근히 다가가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공수호와 우리 공군의 소중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공군장병 및 가족분들, 그리고 월간공군 담당자 여러분들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번 공군은 영원한 공군! 저도 독자로서, 그리고 공군인으로서, 월간공군의 새 출발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Pioneers up above

홍성표 아주대 NCW학과 교수

지난해 공군으로부터 항공전략사상가 열전을 기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에 몹시 흥분되었습니다. 30여 년간 전공하며 가르쳐온 분야를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1단계로 외국의 전략사상가를 정리하고, 제2단계로 한국의 항공전략사상가를 정리했는데, 한국은 이 분야가 상대적으로 빈약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한국에 항공전략사상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60년 이상을 유지해온 거대한 공조적인 공군이 전략사상도 없이 이끌려져 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생각으로 관련 문헌들을 찾아 탐독하며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젊은 현역장교들에 이르기까지 공군에도 훌륭한 항공전략사상가들이 꽤 있습니다. 영웅은 탄생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항공전략사상가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전략적 수준에서 보면서 기획 및 실행하는 항공전략가들이 선배들의 뒤를 이어 더 많이 배출되어 미래 한국의 국방을 이끌어가기에 기여하면서 필을 맺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정홍래 음악칼럼니스트

공군지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공군지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작가 생활을 시작하며 쓰게 된 공군지... 그동안 저는 5년차 작가가 되었네요. 공군지와 함께 한, 많은 공군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하셨죠. 쉽지 않은 군 생활과 제대 후의 사회 초년시절, 그리고 어느덧 적응이 되어가는 사회인으로서의 생활... 그런 삶의 흐름 속에서 공군지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도 늘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그런 순간마다 백척간두 진일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삶에도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 되새기시면서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 주신 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Art in Everyday

박나경 KBS 방송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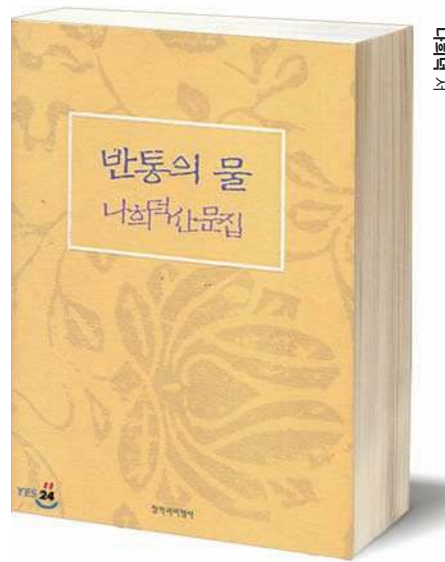
제가 좋아하는 작가 김범의 작품 중에 '자신이 새라고 배운 돌'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탁자 위에 나뭇가지와 그 위에 돌 하나가 앉아 쉬는 작품입니다. 그 옆엔 작가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 남자가 돌에게 '너는 새다. 새들은 날 때는 이렇게, 실 때는 이렇게, 노래는 이럴 때한다.'라며 새에 대한 모든 것을 강의합니다. 그 결과 그 돌은 자신이 새라고 알고 있으므로 나뭇가지에서 쉬는 것이라는 게 작가의 주장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현대미술을 어려워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새라고 배운 돌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현대미술을 어렵다고 배워서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요. 작가들에게 '당신의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으면 열에 아홉은 답합니다. '당신이 보고 느낀 것, 그것이 바로 내 작품입니다.'라고. 그 말에 힘입어 작가에 대해 아는 짧은 지식을 버무려 내 멋대로의 감상을 풀어냈습니다. 한때 유행하던 '일주일이면 누구만큼 한다.' 시리즈처럼 흑시라도 현대미술이 궁금해 이 기사를 꼼꼼히 본 독자가 있다면 이제 자신만의 감상을 풀어내보길 바랍니다.



Health Diary

양진백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항의전대장

공군 군의관 양진백 소령 인사드립니다. 많은 공군 식구들이 보는 월간지에 건강소식란이 없다는게 아쉬워 글을 씀 어보고자 한 것이 동기가 되어 2011년 1월 '아담의 유산 전립선, 얼마나 알고 계 십니까?'를 시작으로 그간 매월 글을 써왔습니다. 그간 월간 '공군'을 통해 유익한 건강정보를 전해드리고자 나름 노력했는데 공군 식구들께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필자는 그간 글을 통해 공군의 사랑이 깊어진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처음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에 '공군 식구'라는 단어를 입력할 때 참 어색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편합니다. 그런 저에게 공군 사랑을 품게 해 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통의 물

지난해 3월부터, 월간 『공군』에 시와 수필에 이어 책 소개 코너인 <책마을>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 어느 순간 제 몸속에서 꺼내놓을 이야기가 바닥났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책마을>의 새로운 이장이 되면서 ‘읽고, 생각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이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한 지 어느덧 2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희덕 시인은 자신의 산문집 『반통의 물』(나희덕 저, 창비, 1999)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는 울음소리가 시라면, 산문은 삶이라는 뽀센 지푸라기를 씹고 또 씹는 되새김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20개월 동안 <책마을> 원고를 쓸 때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뽀센 지푸라기를 씹고 또 씹어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 스스로 부족함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희덕 시인이 자신의 산문집 제목과 관련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반쯤 담겨진 그릇의 물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득 찬 연못의 물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그 말에 비추어보아도 나는 역시 반통의 물에 가깝다’고 고백했듯이 저 역시 ‘반통의 물’처럼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아 좋은 책을 고르고, 그것을 <책마을> 가족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때마다 부끄러웠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는 것은 진실로, 진실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고, 제가 항상 모자라는 ‘반통의 물’과

같았다면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이 나머지 반통의 물을 늘 채워주신 덕분에 지난 시간들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 1884~1962)는 차가운 방에서 달랑 코트 한 장을 뒤집어 쓴 채로 책을 읽고 글을 썼지만 항상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존재의 테이블’이라 이름붙인 얇은뱅이 탁자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탁자였지만 그 앞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자신의 존재를 느꼈던 바슐라르처럼 제게 <책마을>은 ‘존재의 테이블’과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 <책마을>을 떠나려고 합니다. ‘반통의 물’과 같은 제가 ‘존재의 테이블’과 같은 의미를 주었던 <책마을>을 연재하면서 어느 순간 다른 이의 글과 책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로서, 시인으로서 글을 써야 하는 의무에 소홀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젠가 <책마을>에 저의 책이 소개되는 날을 꿈꾸며 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제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자리에서 마치 인생과 세상을 다 안다는 듯이 거들먹거린 것 같아서 <책마을> 가족 여러분께 다시금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또한 <책마을>을 연재하는 동안 전화로, 메일로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은 ‘반통의 물’을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워 언젠가 더욱 좋은 곳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AF**

2012 December

Vol.414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평화수호자 공군 피스아이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2012 December

Vol.414

P
O
S
T
C
A
R
D

2013.01
ALL NEW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 월간 「공군」 12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12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12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12월 31일까지

1. 공군 창설 7인 중 한 명으로 북한군 게릴라 소탕 임무수행 중 용기있는 결단으로 해인사 폭격을 막아낸 사람은?
2. 주로 귀, 손, 발 등 노출된 신체 부위에서 흔히 발생하며, 추위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 통증과 함께 화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은?
3. 남녀의 미묘한 심리를 묘사한 오페라로, 천재작곡가이자 뛰어난 극작가였던 모차르트가 만든 이 작품의 이름은?

10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토네이도 2. 70% 3. 다시마

퀴즈 당첨자 충북 청원군 **조완호** ● 충남 계룡시 **기효성** ● 서울 노원구 **이재형**
전북 익산시 **김정희** ● 전남 여수시 **양승주** ● 대전 중구 **김수훈**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미디어영상팀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najung21@hanmail.net(인터넷)
najung21@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43 / 042-552-6943

2013. 01
ALL NEW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